

6월30일 Market Index			
코스피	8476.48	코스닥	916.18
(+81.83)		(-4.39)	
금리 (연이자율)	3.703	환율 (원/달러)	1549.85
(-0.030)		(+4.65)	

metro 경제



롯데, 한일 합작법인
초입기
신유열 전면에
02

‘맨땅에 헤딩’ 전공정... 장기계획 필요

AI 호남 반도체 시대

①800조 투자, 현실의 벽은

전공정, 칩 직접 만드는 핵심 부지에 전력·용수 인프라와 고급인력·협력사 다 모여야 5~10년 장기적 계획 세워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부지와 착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여러 후보지를 놓고 입지를 고르는 미국과 달리 정부가 호남을 특정해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전공정 특유의 까다로운 입지 조건과 맞물려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면〉

30일 양사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 반도체에 각각 400조원씩 투입해 메모리 팹을 2기씩, 총 4기를 짓는다. 삼성전자는 광주를 후보지로 제시했고 SK하이닉스는 서남권을 부지로 정했으나 구체적인 위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두 거점 모두 칩을 직접 만드는 전공정 중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앞서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후속 보고회에도 부지 깜깜... “미국은 기업이 선택”

이에 시장의 관심은 서남권 투자 보고회로 쏠렸다. 정부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투자협약 체결과 함께 기업별 입지 지원방안 등을 공개했다. 다만 양사는 전날 발표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부지나 건립 일정을 추가로 제시하지 않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광주 첨단3지구와

해남솔라시도, 광주군 공항부지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투자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가 호남을 미리 정해놓고 기업을 압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정부 주도로 입지가 정해진

방식 자체에도 평가가 엇갈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은 여러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시하면 기업이 그중에서 고르는 방식인데, 이번은 호남을 특정해 ‘여기로 가져’는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선택권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 AI시대 성공적 노후 위한 자산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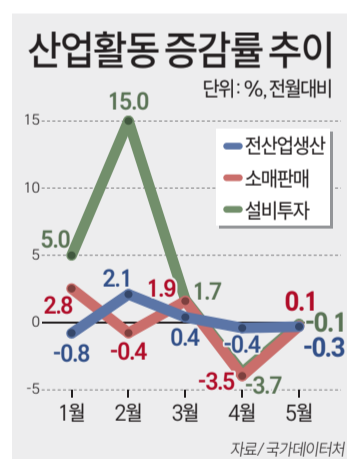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평균 수명과 삶의 질 향상으로 평생 자산관리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00세 플러스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오는 7월 9일(목요일)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 및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상속, 증여 전략, 부동산, 금융자산, 대체투자 및 미래투자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 달라져야’
- ◆ 일 시 : 7월 9일(목)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1시40분~ 2시)
-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 의 :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산업생산 0.3% ↓... 두달째 감소

데이터처, 5월 산업활동동향 반도체·의약품 큰 폭 하락에 제조업 포함 광공업생산 3% ↓



산업생산이 두 달째 뒷걸음질했다. 지난 5월 생산 감소가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지난 1분기 호황을 누리던 반도체 부문의 생산이 10%나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2개월 연속으로 내리막을 걸었다. 소비는 소폭 늘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1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증동 상태 등의 영향으로 4월(-0.4%)과 5월(-0.3%) ‘연속 감소’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3.0%나 감소했다. 자동차(2.7%)와 석유정제(9.8%) 생산은 늘었지만 반도체(-10.0%)와 의약품(-17.5%) 등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2.4% 감소했다. 내수(-2.5%)와 수출(-2.3%) 출하가 모두 줄었다. 재고/출하비율은 101.8%로, 전월대비 4.0%포인트(p) 상승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71.1%로 2.2%p 저하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3% 늘었다. 금융·보험(5.9%), 전문·과학·기술(9.3%) 생산은 늘었고 정보통신(-3.0%)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이득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생산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생산량이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5월 소매판매는 0.1% 증가했다. 4월 3.5% 크게 줄어든 뒤 5월에 증가로 전환한 것. 승용차 등 내구재(-3.4%) 판매는 크게 줄었지만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0.9%)와 의복 등 준내구재(2.3%)의 판매가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

동탄·기흥·구리 투기와열 지정... 집값 잡는다

국토부, 오늘부터 효력 발생 동탄 집값 올해 11.38% 상승 기흥 6.21%, 구리 7.78% ↑ 시장 냉각 vs 풍선효과 이견

전국 집값을 끌어올린 경기 화성 동탄을 비롯해 기흥과 구리가 1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효력 발생은 7월 1일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

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지역 지정으로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시장 과열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22일 기준으로 11.38%나 급등했다. 전국 평균치(1.55%)는 물론 수도권(3.01%)과 서울(4.82%)을 크게 웃돈다. 용인 기흥과 구리의 집값 상승률도 각각 6.21%, 7.78%에 달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모두 영향을 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가 최고 12%까지 중과되며, 청약에서도 재당첨 제한이 10년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다음달 5일부터 내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 지역 지정에도 집값이 잡힐지는 미지수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양 동안과 용인 수지도 올해 들어서만 각각 9.83%, 9.45%나 급등했다.

단기적으로 시장 냉각 효과는 있겠지만 수요가 여전히 탄탄한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양지역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규제 직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가격 상승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수요와 투자수

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원, 용인, 안양시 등 인접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급 확대, 매입대확충,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시장에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공수처, 중수청 시행령안에 반대 의견 제출... “독립성·밀행성 훼손” /사진 뉴시스
- ▲정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본격화... 금융·세계·공공조달 지원 확대

- ▲기후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 고시... 1일 시행
- ▲‘415억 범죄수익 세탁’ 일당 22명 검거... 조폭 출신 총책 덮미

- ▲소방청, 여름철 현장안전 특별점검... 폭염·집중호우 대응
- ▲사육 곰 262마리 위한 보호시설 확충... 계도기간 만료

롯데, 한일 합작법인 출범 초읽기... '오너 3세' 신유열 전면에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신동빈 회장 '원롯데 전략' 결실 아시아 식품사업 컨트롤타워 역할 신유열 실장, 해외사업 전략 주도



지난 5월 싱가포르 현지에서 진행된 롯데 식품 계열사 합작법인 사무실 개소식에서 (왼쪽 세 번째부터) 진영동 싱가포르JV 대표,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이시구로 일본 롯데제과 글로벌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한국과 일본 롯데 식품 계열사의 합작 법인이 이달 초 싱가포르에 공식 출범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한일 원롯데 전략'이 그룹 핵심 사업 영역에서 거둔 실질적인 성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30일 공식 자료를 통해 롯데웰푸드와 일본 롯데제과가 양사 이사회 의결과 관계국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마치고 합작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 설립은 한·일 내수 시장의 성장세 둔화를 해외 사업 확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신동빈 회장의 독심이 반영됐다. 신 회장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원롯데 식품사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양사 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문

해 왔다.

실제 양사의 협업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롯데웰푸드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2024년 대비 14.4% 신장한 1조 2047억 원을 기록했다. 일본 롯데제과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약 9000억 원의 해외 매출을 올렸다.

특히 '글로벌 메가 브랜드 1호'인 빼빼로는 양사의 해외 유통망 전략 운영에 힘입어 지난해 24% 성장에 이어 올해 1분기에는 33%의 가파른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신설 법인은 한일 롯데 식품사의 아시아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경영관리와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 생산, 영업, 물류 인프라를 연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양국 식품사의 시너지 창출과 해외 사업 전략을 직접 이끈다.

향후 합작법인은 ▲글로벌 메가 브랜드 육성 ▲원재료 구매부터 물류·마케팅 등 생산·판매 과정 효율화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한 신제품 출시 ▲성장 잠재력 높은 신규 시장 진출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식품 합작법인 설립은 그룹 전반으로 확대 중인 '원롯데 전략'의 일환이다. 앞서 롯데는 지난해 9월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일본 롯데홀딩스의 합작법인 '롯데호텔스 재팬'을 설립한 바 있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 투자 유치, 롯데벤처스 '엘캠프 재팬'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계기로 한일 롯데 식품의 아시아 사업 역량을 하나로 모으게 됐다"며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메가 브랜드를 함께 육성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 환율... 하반기 완만한 하락 전망

상반기 증가기준 평균 1484.6원 전문가들 환율 고점수준 도달 분석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은 환전소 모니터에 달러 원화 구입가가 16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뉴시스

원화의 기록적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 평균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달러의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상승(원화값 하락)했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등 달러 강세 요인이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2원 오른 1549.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환율은 지난 5월 15일부터 이날까지 31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겼다. 올해 상반기 주간증가 평균은 1484.6원으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환율이 급등한 1998년 상반기의 1493.1원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달러 수급 불균형에 환율 상승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원화값이 기록적인 약세를 보인 가운데, 외환당국은 원·

달러 환율의 급등 요인을 달러의 공급-수급 불균형에서 찾고 있다. 한국 증시에서 매도하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 기업과 개인의 달러 수요가 맞물리면서 고회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9일 하루에만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 7000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동안 약 145조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국내 주식 판매 대금으로 달러를 구매하는 외국인의 자금 흐름은 원·

달러 환율의 주된 상승 요인이 된다.

주요 수출 기업들도 달러 매도를 늦추고 있다. 역대급 수출액에도 해외 재투자 등을 이유로 기업의 달러 수요가 늘었고,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헤지(위험회피) 목적으로 달러 보유를 늘리는 기업도 많아졌다.

◆ 중앙은행 금리 결정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 전망도 원화값 약세의 요인이다. 중동 사태의 해소 전망에도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중인 반면, 고용지수는 양호한 수준을 이어가면서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은 달러 강세를 부추겨 환율을 끌어 올린다.

선물시장의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시카고거래소 페드워치(FedWatch)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올해 말까지 1차례(25bp, 1bp=0.01%p) 이상의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79.6%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두 차례(50bps) 이상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37.7%에 달했다. 반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0%로 전망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한이 올해 말까지 두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본다.

◆ 하반기 환율 상승 제한적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는 한편,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다.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고, 환율이 고점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에서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 글로벌 유동성 재편에 따른 비달러화 통화의 전략적 포지션에 노출되면서 달러 값이 하락하고, 원화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달러적자가 무역흑자를 압도해 고회환율을 유지하겠지만, 견고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누적된 달러 재고는 환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반기 환율 구간으로 달러당 1380~1560원을 전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尹 대통령 지역화폐 활성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잠자는 카드·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다'면서 "수십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 능력 또는 소비 활력 제고"라며 "지난 1분기에 민간 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사용되지 않는 카드·쇼핑 멤버십 포인트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는 게 많다면서 "물렸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그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에 이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전환 방안을 제안하며 "관련 부처에서 쉬고 있는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중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전환)한다는데,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 이게 약화되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metro

/시예진 기자 syj@

중소기업계 "AI 전환, 정부지원 필요"

상의 중소기업위원회 회의 개최

중소기업계가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AI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부족, 투자 부담이 겹쳐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AI3대 강국 전략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양성, 공공 인프라 개방, 금융·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제

10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응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AIG3를 위한 K-AI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AI 육성 전략을 설명했다. 류 차관은 "AI는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엔진이자 전략자산"이라며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AI 육성 정책을 전폭 지원해 미국, 중국에 버금

가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GPU 등 AI 인프라 확보를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력 확보, 산업·공공·지역·과학 분야 AX 프로젝트 추진, 피지컬 AI·AI 반도체·AI 원천기술 등 기술 경쟁력 강화, 일반 국민과 기업인부터 최고급 전문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AI 핵심인재 양성, 글로벌 AI 리더십 확보 등을 제시했다.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은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 시기에 AI를 도입하고 싶어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과 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과 기존 직원 재교육을 위한 AI 인재 사다리, 비용 부담이 큰 AI 기술 개발을 돕는 기술 마중물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든든하게 깔아주는 AI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지 않고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AI 정책과 관련해 중소기업형 AI 활용 전문인력 양성, AI 인프라 구축, AI 지원 통합 창구 운영, 공공 AI 인프라 개방, 맞춤형 피지컬 AI 컨설팅 및 투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4대 보험 통합 처리를 위한 윈스톱 포털 도입 등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안정적 입지·전력·용수 공급… 용인 있는 차세대 생산거점”

SK하이닉스 1100조 투자 일환 AI 확산에 메모리 생산거점 확충 IGW 데이터센터 연계 시너지 구상

**전력·용수 인프라 확보가 관건
구체 부지·착공 시점은 미공개**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1기가와트(GW)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도 함께 구축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서남권 투자는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용인 600조원, 청주 100조원을 포함한 총 1100조원 규모 중장기 투자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운데)가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투자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의 일환이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생산 거점을 서남권으로 넓히는 '포스트 용인' 전략이다.

곽 사장은 폭증하는 메모리 수요를 투자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AI 산업은 학습 단계를 넘어 실제 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는 시대로 진입했다"며 "미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용인 클러스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AI 시대에 메모리가 단순 부품을 넘어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메모리 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첨단 메모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 쌓는 구조여서 같은 용량을 만드는 데도 더 많은 생산 능력이 필요하다. 새 팹을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게 SK하이닉스의 판단이다.

서남권을 택한 이유로는 입지 조건을 꼽았다. 곽 사장은 "대규모 부지에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이 가능한 입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에 생산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서남권을 용인 있는 차세대 생산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과 함께 AI 데이터센터도 구축한다. SK그룹은 5GW 규모를 시작으로 전국에 15GW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서남권에 1GW 규모를 짓는다. 반도체 생산과 AI 연산을 한 지역에서 연결해 산업 생태계 시너지를 내겠다

는 구상이다.

다만 반도체 팹에 더해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서면 전력·용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두 시설 모두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단지에 6.3GW의 전력과 하루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데이터센터 수요까지 더해지면 인프라 확보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투자는 수요 흐름에 맞춰 규모와 시점을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다만 구체적인 부지와 착공 시점은 이날도 공개되지 않았다. 곽 사장은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서남권"이라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위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李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숨 쉬어야”… 호남 반도체 논란 정면돌파

서남권 제2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삼성·SK, 광주·전남 800조 투자 전력·용수·인력 우려에 반박 야권 관치 공세 속 임기내 추진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휘봉을 직접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논란을 정면돌파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남권은 이미 준비된 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29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과 정부·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호남, 충청, 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재계에 따르면 사업 규모만 4755조원(기존 발표까지 포함)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지방 균형 발전까지 함께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전날 삼성전자와 SK는 ▲호남권 896조원 ▲충청권 392조원 ▲영남권 270조원(잠정)의 권역별 투자 계획을 내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입장하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다. 2040년까지 이어지는 양사의 장기 투자계획을 더하면 투자 규모는 4755조원에 달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뿐 아니라 에너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우주항공, 조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서남권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다. 광주·전남에 전공정(웨이퍼를 투입해 칩을 생산하는 핵심 공정)·후공정을 아우르는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데 800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

성은 발표 전부터 논란이 일었다. 정부에 선 전력과 용수, 부지 공급에 용이하며 기업들이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전력과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부터 반도체 사이클 변동성으로 인한 공급 과잉, 전문 인력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관치 개입'이라면서 '작권 남용'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좌우로 둘러싸 세운 채 전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운운하는 그 모

습이야말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이 온갖 미사여구와 장밋빛 전망으로 초격차 산업강국을 외친다고 해도 800조원 규모의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투자는 정치공학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은 알뜰한 정치공학과 권력의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각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기업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와 같은 정당한 문제제기를 회피한다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최고경영자)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과 동시에 공장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각종 우려와 야권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고회에서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안정되고 값싼 용지가 풍

부한 지역을 새로운 사이트로 개발해야 한다"며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도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과거 포항과 광양이라는 두 개의 폐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중공업 신화를 써 내려갔듯, 이제 우리 반도체도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숨 쉬어야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날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마련됐다. 정부는 호남에 이어 충청·영남권에서도 순차적으로 기업 투자 발표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은 이미 준비된 땅이었다"면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지원 보유 ▲KTX·무안국제공항 등 탁월한 입지 경쟁력 ▲인재 양성 기반 보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서남권에 SK와 삼성, 엔코의 대규모 투자가 더해진다면 서남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서남권 800조 투자, 부지·인프라 확보까지 장기전

» 1면 '맨땅에 헤딩 전공정…'서 계속

다만 그는 "정부의 인프라·세제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기업으로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옮기기 어려운 전공정… "5~10년 걸린다"

가장 큰 관제는 전공정이라는 공정의 난도다. 전공정은 칩을 직접 만드는 핵심 공정으로, 후공정보다 협력사와 인프라 의존도가 높다. 대규모 부지와 전력·용수 인프라, 고급 인력, 협력사가 한곳에 모여야 가동되기 때문에 입지를 옮기기가 어렵다.

이중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후공정이라면 입지가 유연해 호남도

가능하고 빅테크 공급을 위해 SK하이닉스는 미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공정은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전공정은 후공정보다 훨씬 어렵다"며 "대규모 투자와 인력, 전력·공업용수가 단기간에 확보되기 어려워 5~10년 장기계획이 필요하고 급하게 할수록 기업 손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입지가 자유로운 후공정을 호남에 적합한 공정으로 봤지만, 정착 발표된 것은 옮기기 어려운 전공정이다. 생산 기반이 거의 없는 호남은 부지·인프라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가 용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도 부지 선정부터 약 9년이 소요됐다.

◆ 전력·용수·인력… 풀어야 할 숙제

용수 확보도 과제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단지에 6.3기가와트(GW)의 전력과 하루 65만톤의 산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남권을 가로지르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은 수량이 한강·낙동강의 3분의 1 수준이어서 안정적 공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순물 없는 초순수를 확보하려면 수질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실제 환경부는 지난해 수자원관리계획에서 50년 빈도 가뭄 시 2030년 영산강에 서만 연간 7000만톤 이상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댐을 높여 저수량을 늘리고 하

수를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물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공급 경로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인력 확보 역시 쉽지 않다. 반도체 전공정은 고급 엔지니어가 대거 투입돼야 하지만 이들 상당수가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인력 이동을 장담하기 어렵다. 여기에 사람뿐 아니라 수도권에 밀집한 소재·부품·장비 협력사의 동반 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에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존 수도권 사업장 인력을 호남으로 전환 배치할 경우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주·교·육·의·료·를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것도 인력이 자

발적으로 호남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재원 조달도 변수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투자를 수요 가시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집행하며 영업이익에서 창출되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규모와 시점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800조원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업황 변동에 따라 투자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는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으로 양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업황이 꺾이면 투자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력·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클러스터 조성의 판을 깔아주겠다는 의지"라며 "결국 정부 지원의 속도와 강도가 800조원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위기의 철강, AI·저탄소로 정면돌파 배터리·에너지 양날개 달고 삼각편대



포스코 제철소 전경. /포스코

18 포스코

posco

◆ 철강의 진화, 'AI' 입고 '탄소' 걸어낸다
포스코그룹은 철강 본업에 AI와 로봇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아이작 심'에 포스코스틸리온 도금공장을 구현해 크레인 제어 AI를 검증하고, 항만 하역 설비(GTSU)에는 센서 퓨전 기술과 강화학습을 적용해 무인 하역을 추진 중이다. 향후 작업자 1명이 4대의 설비를 제어하는 형태로 도입할 계획이다.

압연 공정에서는 작업자 3명이 매달리던 80kg 롤 교체 작업을 이기종 로봇 협업체제로 자동화하는 기술 실증(PoC)을 진행했다. 인사·구매·재무 등에서는 약 110개의 AI 에이전트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철강에 AX 접목... 생산성 높여
엔비디아 '아이작 심' 도금공장 구현
항만하역설비에 무인 하역 추진

압연 공정선 로봇협업 기술 실증
전기로·수소환원제철로 탄소 감축

탄소규제 대응은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의 두 트랙 전략으로 추진한다. 포스코는 지난 17일 광양제철소에 6000억원을 투입한 연산 250만톤 규모의 국내 최대 단일 전기로를 준공했다. 전기로·고로 합당 기술을 통해 고급 강재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오는 2030년까지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관·전기강관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HyREX) 데모플랜트 기술 검증을 완료하고, 2050년까지 고로를 수소환원 공정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캐즘에도 투자 지속... 포스코, 배터리 공급망 주도권 잡는다

철강에 이은 포스코그룹의 두 번째 성장축은 배터리 소재다. 포스코그룹은 전기차 캐즘 속에서도 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보틱스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해 원료부터 양극재, 차세대 소재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있다.

핵심은 리튬 확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 아르헨티나 움브레 무에르토노스 염호 광권 100% 인수를 마무리하며 총 1500만톤 규모의 염수리튬 자원을 확보했다. 채굴 가능 물량은 300만톤 이상으로 전기차 약 7000만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다. 현재 현지에서는 연산 2만5000톤 규모의 1단계 공장이 가동 중이며, 올해 하반기 같은 규모의 2단계 공장 준공도 앞두고 있다.

글로벌 철강산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 규제 강화라는 '삼중고'가 고로 중심 철강사업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 초과 생산능력은 지난해 6억 4000만톤에서 오는 2028년 7억 4500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수요 증가는 3400만톤에 그치는 반면 생산능력은 최대 1억 3900만톤 늘어난다. 여기에 유럽연합(EU) 오는 7월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쿠틀을 약 47%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린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 본격화됐다. 이 같은 전환기 속에서 포스코그룹은 정면돌파에 나섰다. 인공지능 전환(AX)과 저탄소 제철 기술로 철강 본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터리 소재와 에너지를 양대 성장축으로 키워 '삼각 편대'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이미지. /포스코DX



포스코퓨처엠의 합작사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사가 포항 영일만 4산단에 건설하는 LFP 양극재 공장 조감도. /포스코퓨처엠



세넥스에너지 전경.

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이 같은 원료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품과 고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의 17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양극재 신규 시장 판매 확대와 삼성SDI향 NCA, 현대차그룹향 N87 등 고부가 제품 판매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신규 시장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포

스코퓨처엠은 지난 5월 포항 영일만산단에서 LFP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으며,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연산 최대 5만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양극재 분야에서는 베트남 인조흑연 공장과 새만금 구형 흑연 생산체계를 통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1조 149억원 규모의 인조흑연 양극재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차세대 소재 투자도 병행한다. 포스코퓨처엠은 실리콘 음극재를 오는 2028년 양산 공급 목표로 개발 중이며, 전고체 배터리와 무음극 리튬메탈 배터리 공동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 데이터센터와 ESS 확산으로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며 "공급망 경쟁이 격화될수록 광산·염호 투자부터 소재 생산까지 이어지는 포스코식 수직계열화 전략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 1500만톤 규모 염수리튬 확보
양극재 신규시장 판매 등 흑자 전환
LFP 양극재 공장 통해 수요 대응
2028년 실리콘 음극재 양산 목표
가스전 자산 확보해 LNG 원료 조달
美 등과 공급 계약... 밸류체인 강화

◆ 가스전 탐사부터 발전까지...에너지로 완성하는 포트폴리오

포스코그룹 포트폴리오의 또하나 축은 에너지다. 장인화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사업의 수익 창출 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강조했다.

선봉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미국 노스다코타주 가스전 지분 확보를 위해 5억달러 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일래스카 LNG 프로젝트 지분 취득에 이어 미얀마, 호주 세넥스에너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해상 광구 탐사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 가스전 자산을 직접 확보해 LNG 원료를 개발·생산 단계부터 조달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운스트림 밸류체인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세니에르 에너지 등과 연간 110만톤 규모의 미국산 LNG를 올해 말부터 20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물량은 광양 LNG 터미널을 통해 저장·공급된다. 지난 6월에는 한국남부발전과 9750억원 규모의 LNG 터미널 및 직배관 이용 계약을 맺으며 인프라 수익 기반도 다졌다.

발전 부문에서는 지난 2023년 포스코에너지 합병으로 확보한 인천 LNG 복합발전소가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의 부생가스를 활용한 200MW급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1분기 포스코인터내셔널 전체 영업이익이 3575억원 가운데 약 1732억원이 에너지 부문에서 나왔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metro

1960년대 한 기업가의 말입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광고의 의미는
 도저히 아티팩트이다
 은의 표 깃는이다
 소비는 디지털
 소비는 디지털
 재미있고 흥미로운
 광고의 의미는
 소비는 디지털

법사위 이견 못 좁힌 여야... 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민주당 “민생 관련 법안 처리 속도” 국힘, 의총 열고 대응·투쟁방안 논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결국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본회의를 통해 선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러 차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되,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배정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고 제안을 했음에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쳐다보고 있다. /뉴스시스

민주당은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고 해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국민의힘)는 법사위를 지켜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일념”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의장과 함께 본회의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개최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당부로 오후에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재차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정 원내대표는 합의 불발 직후 기자들에게 “지난 6월 12일부터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국 무산됐다.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여야 협의도 불발로 끝났다”며 “여전히 민

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저희 당(국민의힘) 역시 수차례 걸쳐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지 않는 한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가 오후에 개최한다고 하니 저희 당(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전 다시 협상을 제안할 경우에 대해서는 “협이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한병도 직무대행도 국회에서 정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내일부터 당장 쌓여있는 민생 관련 주요 법안들에 특히 속도를 내,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바로 응답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한 달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었다. 국회가 공전(空轉) 상태였다”

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당장 내일부터 국회를 전면 가동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본회의의 전 여야 간 추가 협상이 가능할 지에 대해선 “이미 (본회의) 시간이 공지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이 추가 협상에 대한) 열의가 없을 것 같다”고 못 박았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고, 2주 후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아들이면서 원 구성이 완료된 바 있다.

/서예진 기자·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李 “호남 투자, 지역특혜 아닌 균형발전”

“누적 격차 고려하면 조속지혈 불과 기업 결단,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번호에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호남 지역의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속지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길 바란다”며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전날(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을 갖고 지역 차별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다”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 근데 지금은 첨단 산업, 그중에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그리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더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가 없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며 “때마침 AI(인공지능)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며 “해와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최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어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결단을 해 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 가동... 친한계 징계 수순

張 “지도부 흔드는 행위, 조치 필요” 이르면 6일 징계 요청안 검토

조건부 사퇴론까지 일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징계 국면을 예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중징계 조치를 내렸던 당 윤리위원회의 강경한 대응이 전망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르면 6일쯤 회의를 열어 그간 접수된 징계요청서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선거 이후 장 대표 사퇴 요구에 앞장섰던 친한(친한동훈)계 인사 등이 대상이라는 예측이 대다수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6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가 발생했고 해당 행위 논란도 많았다.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이 있었다. 미뤄 놓은 부분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며 징계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엔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이 한 당직자와 텔레그램으로 징계 대상에 대해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 선거 지원, ‘당대표 등에 대한 막발 비하성 발언’ 등이 징계 대상 행위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공보국은 공지로 “강 조직부총장 문자 메시지는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받는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당 공식 입장이 아니며, 해당 의원의 입장과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중오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징계를 한다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우리 지도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경·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시스

민심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윤리위에서 어떤 식으로 몰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지원) 행동이 국민들에게 반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MB C라디오에서 “우리 당 지지층도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박민식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다”며 “그것에 대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그것을 징계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선관위 국조특위, 내일 올림픽공원 현장조사

7일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방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가동된 가운데, 국조특위 소속 여야위원들이 오는 2일 오전에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을 방문해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오는 2일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 의원은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일에는 서울 송파선관위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방문하고, 7일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송파선관위를 방문해 거기서 브리핑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대를 향해 “국회가 국정조사 차원에서 현장에 방문하고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니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저희는 개표소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시위대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한다”고 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17일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임오경·전용기 의원이 현장을 찾은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시위대에 막혀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난 16일 이곳을 찾아 경찰·체육단체·시위대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점거를 풀지 못하고 복귀한 바 있다.

/뉴스시스



2026년 SK의 생각입니다

AI시대뿐 아니라 과거 시대는
 도저히 이아티하며이다
 이노포켓권이다
 소비다디지트
 소비가구구비스트
 풀이은기대도
 비공수이이다

SK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장마철 車 침수 '비상'... 손보사, 대피 알림 등 피해예방 총력

12개 손보사, 5년간 침수 3.5만 건 96% 장마·태풍 집중 7~10월 발생 별도 피해증빙 없이 기상자료 토대 보험금 지급 '지수형 기후보험' 주목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침수 차량이 3만5000대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손해보험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위험 차량을 미리 대피시키는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일부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상지표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실험하고 있다.

3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2025년 12개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차량 침수사고는 총 3만5011건이다. 이 가운데 95.7%인 3만3490건이 장마와 태풍이 집중되는 7~10월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차량 침수사고 7765건 가운데 7050건이 집중호우가 내린 약 열흘 동안 몰렸다. 연간 피해의 90.8%가 짧은 기간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셈이다.

◆ 침수 막는 문자·보험도 '사고 전 예방' 보험업계의 역할도 사고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서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사전 위험관리로 넓어지고 있다. 보험개발



장마철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차량 침수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다. Chat GPT가 생성한 침수 차량 이미지.

원은 손해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침수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음성안내로 이동을 요청하는 긴급대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순찰자가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가입 보험사와 관계없이 차주에게 대피 안내가 전달된다. 지난해 알림을 받은 차량 2802대 가운데 실제 침수 사고가 확인된 차량은 9대였다.

알림이 나머지 차량의 침수를 모두 막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자에 머물지 않고 고객의 손실

자체를 줄이는 위험관리자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차량이나 건물이 실제 침수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재산보험으로 직접 손해를 보상할 수 있지만, 기후재난은 재산 피해 없이도 매출 감소와 소득 중단을 일으킨다. 폭우로 전통시장의 방문객이 줄거나 폭염으로 공사가 중단돼 발생한 손실은 기존 실손보상형 보험만으로 피해를 입증하고 보상하기 어렵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적 기후현상에 따른 세계 경제적 손실 중 보험으로 보장된 비중은 49%에 그쳤다. 이마

저 물리적인 직접 손실 중심이어서 노동 중단과 공급망 차질 등 간접손실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장 공백은 더 클 수 있다.

◆ 기상지수가 메우는 공백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할 수단으로 지수형 기후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강수량과 기온, 풍속, 수위 등 객관적인 지표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신속지급은 피해 발생 즉시 무조건 보험금이 입금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 없이 객관적인 지표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재난 직후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공급하고 피해자가 매출이나 소득 감소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내 상용화 사례로는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있다. 강수량과 최고·최저기온이 약정 기준을 넘거나 밀리면 별도의 피해 증빙과 현장 확인 없이 객관적인 기상자료를 토대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제주도는 폭염경보로 공공발주 건설현장의 작업이 중단되면 근로자에게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생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일부 지역과 단체보험 중

심의 초기 단계지만 소상공인과 배달 종사자, 물류·관광·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할 여지가 있다.

한계도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어도 관측 지표가 기준에 미달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피해가 크지 않아도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 지표와 실제 손해가 어긋나는 이른바 '기초 위험'이다. 같은 강수량에도 사업장의 위치와 지형, 배수시설에 따라 피해가 다른 만큼 초지역 기상자료와 위성·시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한 정교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 공공 기상·재난 데이터의 표준화와 개방 확대도 선결 과제로 꼽힌다.

지수형 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이나 재산보험을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다. 기존 보험이 차량과 건물의 직접 손해를 보상하고, 지수형 보험이 영업 중단과 소득 감소 등 간접손실과 재난 직후 자금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수형 보험은 별도의 손해사정 없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다만 실제 피해와 기상지표 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역별 데이터를 정교화하는 것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출규제에 수익 한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

인터넷 은행, 수익 다변화 나서 카카오 마스틴캐피탈 지분 인수 자동차 할부금융·리스 진출 가속 토스 '금융투자업 본인가' 획득 케이뱅크 韓-유럽 '판계아' 참여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비은행·비이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에 대출 중심의 이자이익 성장이 힘들어지자 비이자 수익원을 늘려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펜드는 최근 마스틴캐피탈의 지분 100%를 24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마스틴캐피탈은 NH투자증권과 2021년 공동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말 자산총계는 523억원이며, 지난해 영업수익은 65억원이다.

신규 캐피탈사를 설립하는 대신 기존 회사를 인수하면 자동차 할부금융과 리스 등 비은행 여신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투자의 일환으로, 캐피탈업 신규 진출을 통한 금융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뜻이다.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금융당국의 인허가 및 승인심사를 거쳐 연내 인수를 마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리스·렌탈 영역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자동차 유통 플랫폼 파트너사와 협업체 자동차 금융시장 내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카카오펜드가 캐피탈업 진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투자상품과 디지털자산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토스뱅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이번 본인가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포함한 투자증권업 인가다. 토스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펀드 판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을 중심으

로 국가별·자산별 다양한 펀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토스뱅크는 또 솔라나재단과 블록체인의 기반 차세대 금융 인프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솔라나재단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솔라나'의 생태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토스뱅크는 솔라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적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통해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송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결제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시험, 도입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케이뱅크도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최근 한국과 유럽 은행권이 공동 추진하는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판계아(Pangea)'에 참여하기로 했다.

판계아 프로젝트는 국내 은행권과 유럽연합(EU)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법

안 키발리스(Qivalis),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 스위프트(SWIFT), 블록체인의 기술 기업 체인링크(Chainlink) 등이 참여해 차세대 해외송금 모델을 검증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기존 논의에서 벗어나 원화(KRW)와 유로(EUR)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직접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경유하는 구조보다 환전 단계를 줄여 거래 비용과 처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향후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자이익 창출'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 비이자 비은행 사업'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성장동력이 대출 확대였다면 앞으로는 플랫폼 경쟁력과 비이자 사업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캐피탈과 투자,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보험사 적용 1200%룰 GA까지 확대

금융위, 소비자 알 권리 일환

보험사에만 적용됐던 '1200% 룰'이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된다. 또한 대형 GA사의 보험상품 판매 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 및 설명 의무를 확대해 정보공개를 통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

정안에 따른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의무 및 차익거래 금지기간이 확대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설계사의 판매수수료를 분급해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도 예정돼 있다.

'1200% 룰'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칙이다. 기존에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만 1200% 룰이 적용됐으나, 오는 7

(개정 전·후1200% 룰 적용 형태 비교)

구분	개정 전 (21.1월~)	개정 후 (26.7월~)
보험회사 → 소속 설계사		○
보험회사 → GA		○
GA → 소속 설계사	X	○

/자료=금융위원회

월 1일부터는 GA 소속 설계사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경감할 것으로 내다본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500명 이상의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에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 및 순위, 추천 사유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객에게 3개 이상의 동종·유사상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객의 상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추가된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GA 협회는 각 협회 내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번 제도 개편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승진 기자 asj1231@

60세 이상 고령층 다중채무자 증가세

다중채무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만 증가세를 이어가며 다중채무자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이현승의 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채무자는 163만7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65만5461명)보다 1.1%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도 158조680억원에서 155조3810억원으로 1.7% 줄었다.

20~40대 차주 수·대출액 감소세 60대 다중채무자 31만명 10.5% ↑

반면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말 60세 이상 다중채무자는 31만3806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5% 늘었고, 대출잔액도 23조9530억원으로 12.5% 증가했다. 고령층 다중채무자는 2023년 말 25만4267명(19조15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31만3806명(23조95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40대는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20대 다중채무자는 6만3499명으로 22.3% 줄었으며 대출잔액은 2조6920억원으로 27.3% 감소했다. 30대는 27만9191명으로 5.2%, 대출잔액은 23조5050억원으로 10.4% 각각 줄었다. 40대 역시 47만9396명, 53조4870억원으로 차주 수와 대출잔액이 각각 4.4%, 4.6% 감소했다.

50대는 50만1640명, 대출잔액 51조744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증가율은 1% 대에 그쳤다. /나유리 기자

LG전자, 로보틱스사업센터 신설 피지컬 AI 중심 조직개편 본격화

CEO 직속 조직... 송시용 지휘
사업개발 등 완결형 조직 운영
로보틱스 솔루션 기업 발돋움



학습용 데이터팩토리 전담 조직도 둔다. 미래 로봇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팩토리 역량을 조기 확보하고, 데이터팩토리를 운영하며 얻는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RFM(로봇과운대이션모델)을 고도화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시너지로 이어가기 위함이다.

LG전자가 로보틱스를 피지컬 AI 시대 핵심 미래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CEO 직속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신설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LG전자는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생산기술원 산하 제조역량강화담당, 생산시스템솔루션담당, 스마트팩토리솔루션센터장 등을 역임한 송시용 센터장(사진)이 신설 조직을 맡는다.

이번 조직개편은 연말 정기 조직개편을 4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원포인트 성격으로 단행됐다. LG전자가 피지컬 AI 기반 미래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로보틱스 사업의 전략적 중요도와 육성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LG전자는 신설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사업개발, 영업, 오퍼레이션 등 기능을 갖춘 완결형 사업조직으로 운영한다.

신설 로보틱스사업센터 산하에 로봇

LG전자는 로보틱스 사업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이번 조직개편이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민첩한 사업전략 수립과 실행, 핵심기술 내재화, 원가 경쟁력 확보 등으로 이어져 로보틱스 사업 전반의 실행력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로보틱스 사업이 완결형 조직으로 운영되며 향후 LG CNS, LG AI연구원 등 LG 계열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LG(One LG) 관점의 협업이나 글로벌 빅테크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LG전자는 자회사 로보스타와 베어로보틱스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있는 산업용·상업용 로봇에 로보틱스사업센터의

가정용 로봇을 더한 3각 축으로 로봇 시장을 전방위 공략할 예정이다. 다양한 산업, 서비스와 생활 공간을 아우르는 로봇 포트폴리오로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특히 올해를 로보틱스 사업의 기반을 다질 원년으로 보고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로봇 완제품과 더불어 액추에이터 등 로봇 핵심부품 사업, 데이터 생성·학습을 위한 데이터팩토리까지 갖춘 종합 로보틱스 솔루션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서울 서초구 양재R&D캠퍼스에 연내 가동을 목표로 대규모 로봇학습용 데이터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로봇 핵심부품으로 꼽히는 액추에이터는 60년 이상 축적해 온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자체 생산을 준비하고, 외부 고객에 공급하는 사업화도 추진한다.

LG전자 관계자는 “로보틱스사업센터를 중심으로 사업개발과 영업, 공급망, 제조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로보틱스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가온전선, 美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자회사 LSCUS 중심 사업 구체화

가온전선이 미국 자회사 LSCUS의 데이터센터용 버스덕트 장기 공급 계약을 앞세워 미국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온전선은 중저압 전선 중심의 기존 사업 영역을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로 확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대규모 전력 공급과 분배 설비가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가온전선의 미국 사업 확대는 자회사 LSCUS를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LSCUS는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대용량 전력을 분배하는 버스덕트를 앞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3년간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또 다른 빅테크 기업과는 5년간 약 4조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계약은 단발성 수주가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에 따라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프레임 계약이다. AI 데이터센터가 초기 구축 이후에도 서버 증설과 전력 설비 확장을 반복하는 만큼 추가 발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가온전선의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이 2조 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확보한 장기 계약 규모는 회사 매출 대비 상당한 수준이다.

LS그룹 차원의 AI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LS전선은 초고압 케이블, 해저케이블, 초고압직류송전(HVDC), 버스덕트 등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버지니아주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과 북미 전력망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데이터센터 수혜주를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전력을 공급하고 분배하는 인프라 기업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가온전선 역시 단순 전선업체가 아닌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기업 관점에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LSCUS가 확보한 장기 공급 계약은 단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2030년 ESG 목표 조기 달성

2025-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LG전자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폐기물 재활용률 등 주요 환경 분야에서 2030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LG전자는 ESG 분야 주요 성과와 추진 현황을 담은 ‘2025-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폐기물 재활용률에서 각각 2030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LG전자가 국내외 사업장에서 배출한 직접(Scope 1) 온실가스와 간접(Scope 2) 온실가스 합계는 84만2000톤(tCO₂ eq,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값)으로 집계됐다.

LG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7년 대비 54.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효율 설비 도입 및 재생전력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배출량은 2030년 목표치로 세운 87만8000톤보다 낮았다.

제품 사용단계(Scope 3) 온실가스 저감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7대 주요 제품 사용단계의 원단위 탄소배출량은 2020년 대비 22.5% 줄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LG전자 국내의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은 97.3%로, 2030년 목표치인 95%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 보고서에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윤리기준과 운영체계를 담은 ‘AI 책임경영’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차현정 기자

KG그룹, 주요 상장사 자사주 매입 완료

곽재선 회장, 주주 가치 제고 의지 피력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책임경영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KG그룹은 곽 회장이 그룹 내 주요 상장사인 KG케미칼과 KG이니시스가 각각 10만 주(총 20만 주)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입 완료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6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틀간 장내 매수를 통해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같은 장내 매수는 현재 두 회사가 보유한 견고한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 잠재력 대비 현재의 주가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최고 경영진의 공동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곽 회장의 강력

한 의지가 반영됐다.

현재 KG그룹 내 상장사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룹은 이를 바탕으로 기업 성장의 결실을 주주와 투명하게 나누는 ‘성과공유형 경영’을 전사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단순히 외형적인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실 있는 주주환원을 병행하여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KG그룹 관계자는 “주주 가치는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이며, 진정한 밸류업은 주주와의 깊은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향후 배당 확대, 투명한 경영 공시 등 다각적인 주주 환원 로드맵을 성실히 이행하여 밸류업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 '수원하이테크센터' 전경.



원격진단하고 로봇활용 작업... 정비서비스 혁신

르포
현대차 수원하이테크센터

연면적 5만1497㎡... 연구시설 연상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자동화 정비

“수원하이테크센터는 현대차의 서비스 철학인 신속, 정확, 친절을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새롭게 구현했다.”(장재훈 부회장)

장재훈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은 30일 경기도 용인 기흥구 수원하이테크센터 개관식에서 현대차의 핵심 차별화 경쟁력으로 ‘신뢰’를 강조했다.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면 서비스센터에서는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간다는 것이다.



소음이 발생한 위치가 모니터에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이를 통해 차량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정비. /양성운 기자

이날 개관식에는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호세 무노스 현대차 사장, 이한우 현대건설 부사장, 손찬모 현대모비스 부사장, 서울호 서아키텍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가 이날 처음 공개한 수원하이테크센터는 기존 자동차 정비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끈 것은 원형 타워 형태의 외관이다. 사각형 위주의 기존 서비스센터와 달리 미래 연구시설을 연상시키는 디자인, 빛의 유입을 조절하는 루버를 적용해 시간에 따라 다른 표정을 만들어냈다.

수원하이테크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5만1497㎡(약 1만5578평)로 조성돼 경기 남부권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1층에는 고객 전용 라운지인 ‘아트리움’과 차량 입고장, 상담 부스, 제네시스 쿼츠 전시 공간을, 2~4층에는 현대차(2층)와 제네시스 브랜드(4층)의 정비공간이, 지하에는 자동화 부품창고가 마련됐으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충전시설도 갖췄다.

수원하이테크센터의 핵심은 현대차 서비스 철학인 ‘신속·정확·친절’을 미래 기

술로 구현했다는 점이다. 현대차 최초로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자동화 정비 환경을 구축해 정비 효율을 높이고 고객 대기 시간을 줄였다.

정비는 차량이 센터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원격진단 플랫폼(RDSP)이 예약 고객의 차량 데이터를 미리 분석해 예상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품과 정비 계획을 사전에 준비한다. 이처럼 ‘기다리는 정비’에서 ‘예약 기반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이 이미 현실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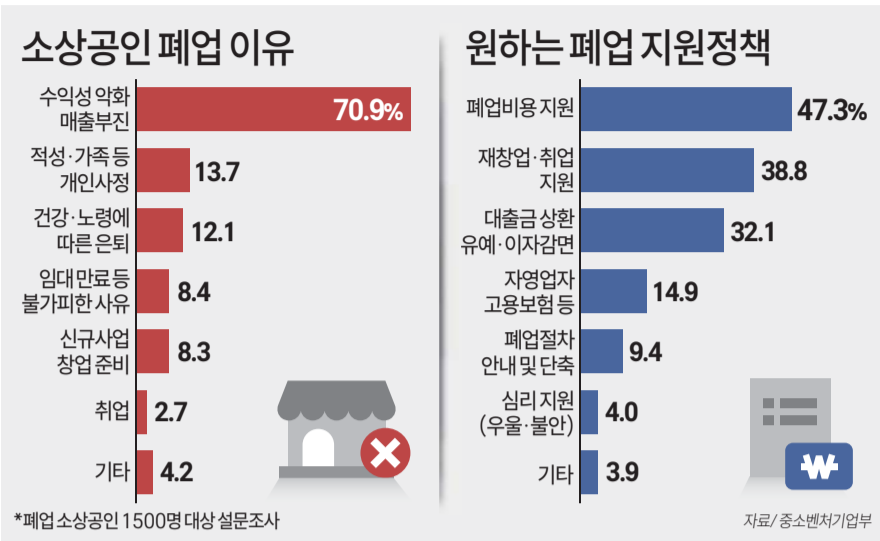
정비 현장에서는 사람보다 로봇이 먼저 움직인다. AMR(자율 부품 이송 로봇), AGV(자율주행 운반 로봇), ACR(자율 케이스 처리 로봇)이 필요한 부품을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무인 카리프트 시스템이 차량 이동을 담당한다. 작업자는 부품을 찾거나 차량을 옮기는 시간을 줄이고 정비에 집중할 수 있다.

이곳은 정확한 진단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데이터·NVH 분석실에서는 소음과 진동, 영상, 제어기 통신 등을 분석해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결함까지 찾아낸다. 품질합동분석실에서는 연구소와 본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며 품질 개선까지 연계한다. /양성운 기자 ysw@

소상공인 폐업 연평균 99만개... 절반은 개업 3년 내 문 닫아

(2023~2025년)

중기부, 국세청 자료 첫 분석
작년 97만5000곳 문 닫아
2024년엔 100만8000곳 넘어
소매 등 6대 업종에 77% 집중
10년 버틴 사업장 13.7% 그쳐
崔 “위기진단·재기까지 지원”



(정량통계)하고,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정성통계)를 해 30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 분석 자료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 숫자는 2023년 98만6487개, 2024년 100만8282개, 2025년 97만5681개로 각각 나타났다. 이 기간 폐업률은 각각 9.02%(2023년), 9.04%(2024년), 8.64%(2025년)였다. 최근 1년새 폐업 숫자가 3만2601개 감소한 것과 함께 폐업률도 0.4

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숫자(89만411개), 폐업률(9.06%)에서 법인사업자(8만5270개, 5.79%)보다 월등히 높았다. 개인사업자 중 폐업 숫자로는 일반사업자(48만3210개), 폐업률로는 간이사업자(12.15%)가 많았다. 보통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을 제외한 폐업률은 지난해의 경우 10.14%로 전체보다 높았다. 숙박업, 도매업, 제조업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6대 업종'의 폐업률도 2025년 기준

11.08%로 역시 전체 폐업률(8.64%)보다 두드러졌다. 이 중에서 소매업은 지난해에만 28만1995개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매업 폐업률은 15.4%로 전체 폐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2025년 기준 폐업 소상공인의 50.9%는 문을 연지 3년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이상 영업을 한 곳은 13.7%에 그쳤다.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폐업 실태 결과 '문을 닫은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악화·매출부진'(70.9%)이었다. 이외에 '적성·가족 등 개인 사정'(13.7%),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12.1%) 등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폐업 결심 시점'은 절반이 훌쩍 넘는 64.4%가 '정상 매출액의 40% 이상 감소 시' 폐업을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폐업 결심 당시 68.5%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 금액은 8531만원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부채가 9897만원으로 파악되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부채도 많았다. 평균 폐업 비용은 1286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점포정리 비용(559만원)이 가장

많이 들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폐업 비용 지원(47.3%)을 가장 확대돼야 할 폐업 지원 정책으로 꼽았다. '폐업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45.5%가 '대출금 상환'이라고 답했다. '폐업 시점 결정'(37.3%), '보증금·관리금 회수'(30.7%)도 그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들은 폐업 이후에도 애로가 적지 않았다. '가계 생계비 부족'(40.5%),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 곤란'(22.1%), '향후 경제활동 대안 부재'(19.4%) 등을 주로 겪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갓고 있던 재산'(33.8%)이나 '근로(취업) 소득'(32.8%)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한번의 폐업이 소상공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벽이 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폐업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입체적으로 연계해 폐업 전 위기 진단·알림부터 폐업 이후 재기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석화업계, 에틸렌 부진에 '고부가 소재' 전환 가속

LG화학, 첨단소재 R&D 확대
롯데케미칼, 기능성 소재 강화
한화솔루션, 태양광으로 완충



전남 여수석유화학단지. /뉴스시스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고부가 소재와 비화학 사업을 앞세워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다. 래깅 효과가 견인된 에틸렌 스프레드 부진과 역래깅 부담, 중국발 공급 과잉이 맞물리면서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아서다. 첨단 소재와 스페셜티 제품으로 사업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범용 제품 부진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효율 설비 조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범용 석유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 2035년까지 연구개발(R&D)에 15조원을 투입해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성장

분야의 소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석유화학 시황에 좌우되는 범용 제품 비중을 줄이고 저유전 소재, 열관리 소재, 유리기관 등 첨단 산업용 소재를 키워 수익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탄소 저감 기술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LG화학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e-SAF)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에 나서며 탄소 포집·활용 분야 사업화가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기존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성장 방식이 한계에 부딪힌 만큼 탄소 저감 기술과 고부가 소재를 함께 키워 업황 변동성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기능성 소재 비중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첨단소재, 정밀화학, 배터리 소재, 수소에너지 등 신성장 분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회사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전남 울촌산단에 연 50만톤 규모의 컴파운딩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모빌리티·IT용 고성능 소재와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군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현상액(TMAH)과 배터리용 동박, 피지컬 AI·항공·우주용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Super EP), 리사이클 소재 솔루션도 고부가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한화솔루션은 케미칼 부문 효율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강화를 함께 추진하

고 있다. 케미칼 부문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큐셀을 중심으로 미국 태양광 생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내 태양광 셀·모듈 생산 확대는 석유화학 업황 부진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쟁이나 일시적인 공급 차질이 끝나면 결국 시장은 다시 공급 과잉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으로는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적 해지를 가진 소재와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 구조 전환이 범용 석유화학 부진을 온전히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페셜티 제품은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규모 설비를 기반으로 매출을 올려온 범용 제품의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기중앙회 익명제보센터 강화 논의 불공정거래 발굴 기대

중소기업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등 공정거래 정책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분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이날 자리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회 회장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학계·법조계·연구계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의 발표를 청취하고 공정거래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도급 연동제 등 현안 점검
업종별 사례 모아 제도개선

정부 실증·구매 사업, 스마트도시로 확대 SK케미칼, 스카이펠로 데코시트 유연성 ↑

중기부, 기상청 등 18개 기관 참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로봇 분야에 이어 스마트도시 분야로 확대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는 로봇, 스마트도시 등 신산업 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가 정부·공공기관 실증을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시범구매 및 해외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로봇' 분야에선 경찰청 등 5개 정부기관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20개 협업

과제를 공모했다. 실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창업기업을 평가한 결과 최종 13개사가 선정됐다.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현장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에서도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사 내에서 벤처기업의 물품 배송·운반 로봇 실증·구매를 진행 중이다. 실증을 진행하는 트위니는 올해 중기부의 유니콘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잠재 유니콘 기업이다. 트위니의 '나르고60'은 최대 60kg의 화물을 적재하고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자율주행 물류 배송 로봇을 말한다. /김승호 기자

도레이첨단소재와 공동 개발
한솔홈데코 마감재에 적용
SK케미칼이 탄소소재 스카이펠(SKYPEL)을 가구·인테리어용 데코시트에 적용하며 스페셜티 소재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SK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와 함께 스카이펠을 적용한 유연 데코시트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소재는 한솔홈데코의 가구·인테리어 마감재인 '스토리필름(Story Film)'에 적용돼 기존 제품의 가공성과 적용성을 높인 업그레йд 제품으로 구현됐다. 이번에 개발된 데코시트는 고급 인테리어와 가구용 마감재로 사용돼 온 GAG PET 필름의 장



스카이펠(SKYPEL)이 적용된 스토리 필름이 적용된 주방 하부장 모습. /SK케미칼

점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GAG PET 필름은 PET 기반의 GAG(Glycol-modified Amorphous Polyester) 구조를 적용한 복합 시트 소재로 높은 투명도와 광택, 선명한 색감 구현이 가능해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마감재에 활용돼 왔다. /원관희 기자

참석 위원들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반복적 불공정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또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직권조사 및 엄중 제재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동시에 업종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정한성 위원장은 "위원회가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공정거래 제도 개선 논의에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은 내일도 맑음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의 본분을 다하여
개인과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 벤처모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생태계 구축
- 지역균형발전 지원
- 청년·취약계층 재도약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공급 확대
- 연체 차주 재기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하이퍼클로바X’에 멀티모델 더해 글로벌 AI 기업 핵심 파트너 부상

네이버 ‘멀티모델 AI’ 전략

개발 현장에 ‘클로드 코드’ 도입
오픈 AI, 삼성전자와 대규모 계약
국내 대기업 중심 AI 확대 속도
향후 네이버와 협력 가능성도

미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국내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가운데, 네이버가 글로벌 AI 기업들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엔트로픽이 네이버를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공개 언급한 데 이어 업계에서는 향후 오픈AI와의 협력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네이버의 ‘멀티모델 AI’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첫 해외 거점을 마련한 엔트로픽은 한국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를 클로드 활용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례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다. 엔트로픽은 네이버가 수천 명 규모의 개발 조직에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Claude Code)’를 도입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특정 AI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초거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와 글로벌 AI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멀티모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자체 모델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업무 목적과 서비스 특성에 따라 외부 AI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발 조직이다. 네이버는 클로드 코드를 개발 현장에 도입해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자체 AI 기술도 다양한 서비스와 업무 환경에 적용하며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삼성은 오픈AI…네이버는 멀티모델
국내 AI 도입 전략에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앞서 오픈AI는 삼성전자와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국내 전 임직원과 글로벌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임직원을 대상으로 챗GPT 엔터프라이즈와 코텍스를 도입하며 AI 업무 혁신에 나섰다. 오픈AI는 이를 자사 최대 규모의 기업 AI 도입 사례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반면 네이버는 특정 글로벌 AI 기업과 독점 관계를 맺기보다 자체 모델과 외부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AI 성능과 비용, 보안, 활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전략이 향후 오픈AI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픈AI가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용 A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네이버와의 협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까지 양사 간 공식적인 협력 계획이 발표된 것은 없다.

◆ AI 생태계 경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을 핵심 전략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과 글로벌 AI 모델을 병행 활용하는 사례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하나의 AI 모델만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특성과 성능, 비용,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해 여러 모델을 함께 활용하는 멀티모델 환경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특정 AI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챗GPT와 클로드, 자체 AI 모델을 목적에 맞게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하면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모델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엔트로픽과 오픈AI 모두 한국을 전략 시장으로 보고 기업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네이버 역시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AI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인서트애니웨어’ 기술을 활용해 SK텔레콤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에 키즈 전용 브랜드 켄(ZEM) 캐릭터 ‘에스곰’을 합성한 모습. /SK텔레콤

SKT, AI 영상합성 기술 경쟁력 입증

ECCV, ‘인서트애니웨어’ 논문 채택
카이스트 주재걸 교수 연구팀과 연구

SK텔레콤이 글로벌 무대에서 AI 영상 분야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AI 영상 합성 기술 ‘인서트애니웨어’ 관련 논문이 유럽컴퓨터비전학회(ECCV)에 채택됐다고 30일 밝혔다.

인서트애니웨어는 영상 촬영 당시 실재하지 않는 사물을 AI로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기술이다. 광고 영상에 특정 제품 이미지를 새로 배치하거나 촬영이 끝난 콘텐츠에 소품·캐릭터·브랜드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연구는 카이스트 주재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핵심은 ‘4D 장면 이해 기술’이다. 영상의 3차원 공간 속 시간의 흐름을 인식해 카메라가 이동하거나 새로 삽입된 사물이 다른 물체에 가려지더라도 위치와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

는 사물의 위치와 크기가 흔들리거나 실재로는 가려져야 할 사물이 화면에 그대로 남는 한계가 있었다. 사물 주변의 그림자와 반사 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 부자연스러웠다.

사용자가 특정 장면에서 사물을 넣을 위치를 지정하면 AI가 해당 위치 정보를 전체 영상으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결과물이 실제 촬영된 장면처럼 보이도록 위치와 형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림자 반사, 조명 효과를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향후 영상 후반 작업, 광고 제작, 가상 제품 배치 등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실제 광고·미디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AI 영상 합성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학회에서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컴퓨터비전학회는 컴퓨터 비전 및 패턴인식학회(CVPR), 국제컴퓨터비전학회(ICCV)와 함께 세계 3대 컴퓨터비전학회로 꼽힌다. /조민선 기자

따능스쿨, ‘AI 활용전문강사’ 민간자격 운영

1·2·3급 체계로 운영
강의 역량 단계별 평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 전문기업 따능스쿨은 민간자격 ‘따능AI활용전문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따능AI활용전문강사는 1·2·3급 체계로 운영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능력과 이를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의 역량을 단계별로 평가한다.

교육은 따능스쿨이 자체 개발한 한국

어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따능AI’를 활용해 진행된다. 따능AI는 한글 프롬프트만으로 이미지와 영상, 음악, 음성 등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기관(KTR)의 소프트웨어 품질(GS) 1등급 인증을 획득했다.

따능스쿨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 수요가 늘면서 관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실무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IPTV, 지역 케이블TV 의무 송출해야”

케이블 지역채널, 생활정보 전달
SO 지원대상 제외, 미디어기금 제한
IPTV 유료화, 지역성 의무 지지 않아

지역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SO)을 지역방송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TV(IPTV)에 해당 채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5극3특 시대, 지역채널의 역할과 케이블TV의 미래’에서 경북대 김연식·황경호 교수는 케이블 지역채널의 지역성을 분석한 공동 연구 발표를 통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연식 교수는 케이블 지역채널이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단위 생활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수치로 산출하기 위해 생활밀착성, 자치공론성, 문화생동성, 주민참여성, 경제축진성 등 5개 기준으로 하이퍼로컬미디어지수(HMI)를 개발했다.

경남·울산 8개 방송사를 분석한 결과 서경방송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JCN 울산중양방송은 경제축진성과 주민참여성에서 강점을 보였다.

지역 채널이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도적 혜택에서는 배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SO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매출의 1.5%를 납부하고 있어, 적자를 내는 사업자도 부담은 지지지만 지원은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행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SO를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지역방송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

해결책으로는 미디어기금 지급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성 기준과 관련해서 사업자 유형으로 혜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를 들여다 봐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재정 부담을 덜고 인력 재교육을 시켜서 퀄리티를 높이고 논평, 해설 등 감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에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IPTV가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하면서 케이블 SO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통신사가 보유한 대형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IPTV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룹 내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케이블 채널의 중요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IPTV가 지역 기반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과 경쟁을 하면서도 지역성과 관련한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경한 전북대 교수는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하고 SO 지역 사회 역할 재정의 ‘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최근 10년간 SO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2015년 12.5%에서 2024년 0.75%로 감소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지원 차원이 아니라 지역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거버넌스와 자원 문제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SO가 하이퍼로컬 미디어와 광역 지역방송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 생활권 단위 정보를 연결하는 중간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 공공미디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원 구조를 다원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지역미디어 계정을 신설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지방재정특별교부금·수신료 지역 환류분·플랫폼 공공기여금 등을 결합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플랫폼 사업자가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카카오, 카톡 기반 법률 전자문서 구축

로앤컴퍼니·하나금융타이어 ‘맞손’

카카오가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타이어와 협력해 카카오톡 기반 법률 전자문서 서비스를 구축한다.

카카오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빌딩에서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타이어와 법률 분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6년 국민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추진에 맞춰 이뤄졌다. 카카오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서 사업 주관사인 로앤컴퍼니와 협력하고, 하나금융타이어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운영을 맡는다.

3사는 법률 문서의 안전한 유통과 보관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법률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카카



카카오는 로앤컴퍼니, 하나금융타이어와 법률 분야 전자문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카카오 이장범 지갑라이브 리더,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 하나금융타이어 박용해 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오톡 기반 전자문서 송수신 채널을 제공하며, 로앤컴퍼니의 법률 플랫폼 ‘로톡’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를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전달한다. 해당 문서는 하나금융타이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 /최빛나 기자

NH투자증권, 각자대표 체제로... IB·WM 전문경영 시대 개막

신재욱·배광수 대표, 책임경영 강화
취임사 통해 “통합 성장 위한 운영”
AI 기반 업무혁신 등 경영방향 제시

NH투자증권이 창사 최대 실적과 종합 투자계좌(IMA) 사업 기반을 마련한 운영 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문경영인 시대를 열었다.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WM)를 각각 책임지는 각자대표 체제를 통해 사업별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AI 전환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앞세워 초대형 투자은행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 성장 토대 위에 새 리더십 세웠다

NH투자증권은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재욱·배광수 각자대표를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IB·운용·홍세일과 WM·디지털 부문을 각각 총괄하는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다.

이번 경영체제 개편은 IMA 사업 추진과 자본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사업 부문별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NH투자증



신재욱 NH투자증권 각자대표

권은 앞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임시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마쳤다.

이번 인사는 운영·전 대표 체제에서 마련한 성장 기반 위에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세대교체’ 성격도 갖는다. 윤 전 대표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 4206억원, 당기순이익 1조 315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이끄는 회사의 첫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최근에는 약 8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통해 IMA 사업 진출 기반도 마련하며 미래 성장의



배광수 NH투자증권 각자대표 /NH투자증권

토대를 다졌다.

신재욱 대표는 IB·운용·홍세일 부문을, 배광수 대표는 WM·디지털 부문을 각각 총괄한다. 오랜 기간 각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두 대표는 사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사 차원의 성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게 된다.

◆ “전문성은 나누고, 성과는 하나로”

신재욱·배광수 대표는 공동 취임사를 통해 각자대표 체제를 ‘분업’이 아닌 ‘통합 성장’을 위한 운영 방식으로 규정했다.

두 대표는 “각자대표 체제는 회사를 둘로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은 명확히 하되 전사 성과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운영체제”라며 “원한과의 사결정은 더욱 명확하고 빠르게 하되 최종 성과와 책임은 함께 지겠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수의 성과 지속 가능한 이익 체력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핵심 경영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업 간 시너지 강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두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시너지는 단순한 협력력이나 고객자산 확대가 기업금융의 우량 투자 기회 선점과 운용성과 제고로 이어지고, 높아진 운용성과가 다시 고객자산 증대를 견인하는 선순환 통합성장 구조”라며 비즈니스 모델과 제도적 기반을 시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순환 통합 성장 구조를 가속화하려면 자본이라는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며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는 자본을 과감히 배분하고 효율성이 낮은 영역은 면밀히 점검해 한정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두 대표는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

라 임직원의 판단과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업무 전반에서 AI 활용도를 높여 임직원이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원칙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내부통제 강화와 주주 가치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도 주요 경영 축으로 제시했다. 영업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 점검과 고객 관점의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 상장 금융투자회사로서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와 함께 NH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농업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대표는 “새로운 체제의 성공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조직의 안정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변화는 분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하나의 NH투자증권으로 성과를 만들고 고객에게 더 신뢰받고 주주에게 더 인정받으며 임직원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상승장 초입... AI 반도체, 1만피 이끌 것”

인터뷰
김두연 하나증권 채널전략팀장

“실적 뒷받침, 버블로 보기 어려워
삼전보다 하이닉스 투자 매력 높아”

“과열과 상승장의 초입은 동시에 온다.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이 상승장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1만 시대를 눈앞에 둔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사야 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어느 기업이 더 유망한지, AI 열풍이 버블은 아닌지까지 시장의 관심은 온통 AI와 반도체에 쏠려 있다.

메트로경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김두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 채널전략팀장을 만나 코스피 1만 시대와 AI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다음 주도주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 “코스피 1만은 실적이 만드는 숫자”

김 팀장은 이번 상승장의 출발점을 지난해 9월로 꼽았다. 그는 “AI는 그전부터 있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쇼트지(공급 부족)의 수혜가 한국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온 시점이 지난해 9월”이라며 “그때부터 지금의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경기민감 산업으로 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PC와 스마트폰 중심의 B2C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AI 데이터센터와 기업 투자가 이끄는 B2B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 평균 메모리 사이클이 5년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상승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SK하이



김두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 채널전략팀장

닉스 ADR 상장과 향후 삼성전자 ADR 가능성까지 더해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리레이팅이 진행된다면 코스피 1만은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버블론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버블은 돈을 못 버는데 주가만을 때 이야기”라며 “마이크론이 실적으로 이를 증명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AI 메모리 효과가 실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장 많은 돈을 푼 주체는 국가였다”며 “과거 안보 자산이 석유와 철강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와 AI가 새로운 안보 자산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전자·닉스’보다 ‘닉스·전자’... “그레도 둘 다 긍정”

김 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운데 현재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전자, 닉스’가 아니라 ‘닉스, 전자’라면서도 “삼성전자 역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의 전략도 다르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HBM4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는 반면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전반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엔비디아 베라 루빈 일정 등을 감안하면 HBM4만 확대하기보다 수익성이 높은 D램과 낸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모멘텀이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에 있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다.

김 팀장은 “시장은 ADR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살 수 있는 것과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경쟁사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접근성”이라며 “ADR은 그 할인 요인을 하나씩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전략으로는 자신의 대표적인 원칙인 ‘밀리면 사자’를 다시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밀리면 사려면 결국 현금이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산의 약 15%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후 유망 산업으로는 양자컴퓨팅, 우주, 로봇, 피지컬 AI를 꼽았지만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정도의 주도주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를 70 정도로 두고 나머지 30 정도를 차세대 주도주 후보에 투자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S&P “AI 수출이 한국 경제 견인”

S&P 글로벌레이팅스 기자간담회
GDP 성장률 전망치 2.9%로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에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AI 관련 기술 수출 호조를 반영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9%로 상향했다. 다만 성장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된 만큼 공급 확대 이후 업황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S&P글로벌레이팅스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AI 산업의 급성장과 잠재적 신용 위험’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루이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동 갈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과 에너지 비축 능력으로 아시아 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견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거의 3% 수준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6개월 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라며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경제를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최근 AI 관련 기술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AI발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 탄 전무는 AI 수출 확대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배경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자금을 지목했다.

탄 전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

동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최근 3년여 동안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가 4000억달러 이상 증가했고 실제 신규 자금 유입도 최소 2000억~30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출 증가로 유입되는 외환을 상당 부분 상쇄할 정도”라고 분석했다.

기업 부문을 발표한 김재열 이사는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AI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들어 한국 기업 섹터 전체의 이익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성장은 반도체라는 한 축에 집중돼 있다”며 “1분기 성장의 약 80%가 반도체에서 나온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슈퍼사이클이 적어도 2028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8년부터는 유의미한 생산능력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 능력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긍정적으로 보는 산업은 방산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상무는 국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가계신용대출과 증시 변동성을 꼽았다.

김 상무는 “주식시장 전망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부터 가계신용대출이 크게 확대됐고 이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로 주식시장 조정이 일어날 경우 가계신용대출 부실이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업금융과 주식 익스포제가 늘어날 경우 자본 건전성에도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정윤 기자

이커머스업계, 역직구 시장 주목 국내 셀러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

G마켓 글로벌 판매 시스템 고도화
11번가 징동닷컴 직구 플랫폼 연계
무신사 '몬스터 세일' 역대 최대실적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이커머스 업계가 역직구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낙점했다. 해외에서 K-뷰티와 K-패션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이커머스와 해외 셀러의 협업을 강화하고 물류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국내 셀러들의 해외 판매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해외 소비자들의 한국 상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도 역직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역직구 시장은 계속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2억 2458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1억 2688만 달러)보다 77.0% 증가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집계 이후 월간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국내 주요 플랫폼들도 해외 현지 이커머스와 시스템 연동과 물류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내 셀러들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G마켓은 라자다와 공동으로 글로벌 판매 시스템을 고도화해 해외 진출 장벽을 낮췄다. G마켓을 통해 해외 판매를 하고자 하는 국내 셀러는 상품을 인천 소재 G마켓 물류센터까지만 보내면 되고, 이후 국제 배송과 통관, 고객응대(CS) 등은 G마켓과 라자다가 전담하고 있다. 현재 총 1만 7000여 명의 국내 셀러가 글로벌 판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동 판매 상품 수도 지난해 말 700만 개에서 최근 3000만 개로 늘었다.

11번가도 징동닷컴의 해외직구 플랫폼 '징동월드와이드'와 연계해 징동로지스틱스가 입고부터 통관, 국제배송, 현지 배송까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외 판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특화 카테고리 내세운 플랫폼들의 글로벌 성과도 두드러졌다. 특히 K-문화의 대표격으로 꼽히는 뷰티와 K-POP 관련 상품의 약진이 눈에 띈다.

무신사는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진행한 글로벌 '몬스터 세일'에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155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K패션 브랜드의 판매 호조에 더해 글로벌 스토어 내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62% 증가하며 실적을 견

인했다. 이커머스 업계가 역직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터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3년 227조 3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42조 897억원(5.8%), 2025년에는 272조 398억원(4.9%)으로 증가율이 점차 낮아졌다. 반면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2025년 3조 234억원(16.4%)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인기와 힘입어 뷰티와 패션을 중심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면서 역직구 시장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3년, 2024년, 2025년 가장 많은 판매액을 기록한 상품군은 뷰티로, 매년 전체 직접판매액 중 평균 58.83%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역직구에서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품목은 뷰티"라며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시장으로 판로를 넓히려는 셀러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seo@metroseoul.co.kr



metro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이 지난 29일 대전 본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

정창진 "원자력원료, 완벽한 품질관리 필수"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원전 원료 100% 기술자립 달성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한전원자력연료. 대한민국 원전에 들어가는 모든 핵연료를 전량 생산하는 이곳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원료 전문회사다.

지난 29일 정창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반도체 칩을 하나 만드는데 '일레븐 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400개가 넘는 공정을 거치며 숫자 9가 11개가 있을 정도의 초고순도의 칩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원자력원료도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어진다"며 "원자로 안에 2000만 개 가까이 들어가는 펠릿이 발전을 하면서 전혀 문제없이, 손상 하나도 없이 계속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만큼 완벽한 품질 관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한전원자력연료의 가장 큰 자부심은

원전 연료에 대한 '100% 기술 자립'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미국 등 해외 기업에 노심 설계나 엔지니어링 서비스 로열티를 부르는 대로 줘야 했으나, 이제는 독자 기술을 완벽히 확보했다. 나아가 원전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직원들이 장기 출장 형식으로 상주하며 사용 후연료 검사 및 수리 등 종합 연료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미래 원전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사고저항성연료(ATF)' 개발에서도 글로벌 탐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이미 지난해 새울 원전에 시험용 연료를 장전해 성공적으로 연소 시험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31년 인허가를 완료해 국내의 가동 원전에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임금체불 제재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이동통신 '최적요금제 고지' 시행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 간 외환시장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24시간 가동된다. 10월부터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다 유리한 요금제가 추천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징역·벌금형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이 담겼다.

재정경제부 소관의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7월부터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현재 은행 간 외환시장이 열리

는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다. 이제 외국인 투자자 등은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 언제든지 원화를 사고팔 수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 오는 10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요금제 고지'가 시행에 들어간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문자나 이메일 등 본인이 선택한 수단으로 안내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올라간다. 현행법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월부터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퇴직금 체불에 대한 처벌 역시 동일하

게 상향된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 또는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가 해당된다.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뒤 직원을 새로 채용하더라도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된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는 강화된다.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에는 3개월분까지만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6개월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일주일만 쓸 수 있게 된다. 8월 20일부터 연 1회 1~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둔 근로자가 방학이나 휴원·휴교·질병에 따라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K-미식 체험·관광 프로그램 확대

송미령 장관, '우리들의 밥상'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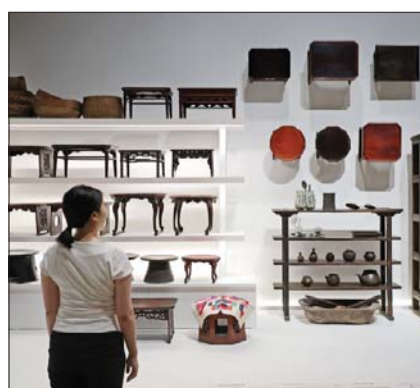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K-미식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육성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개막식에 참석해 '박물관의 식문화 특별전과 시너지를 발휘해, 방한 관광객들이 한국의 맛과 멋을 깊이 있게 즐기고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올해 하반기 'K-미식 여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K-차킨 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식품명인, 한식 페스타 등 대한민국 전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미식·관광 콘텐츠를 본격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찾는 전세계 관광객들이 우리 음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관광



국립중앙박물관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산업부, 자원안보 위기경보 하향 조정

비상수급조치 종료·완화 절차 돌입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중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됨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다. 전쟁 발발 이후 가동했던 비상 수급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종료하거나 완화 절차에 돌입한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1일 자정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주의'로 한 단계 하향하고,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를 해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중동 지역 내 원유 생산·수송시설의 타격 여파와 진전하는 불안 요인을 고려해 원유 위기경보는 완전히 해제하지 않고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위기 경보 완화에 맞춰 2주간 한시적으로 가동됐던 비상조치들도 대거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 원유 도입 다변화 지원(석유수입부과금 환급 확대)을 비롯해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제도, 비축유스와프 제도는 예정대로 일몰된다.

정부는 향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및 정유사들과 협업해 일일 도입 동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시장 교란 행위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상황이 전면 정상화되어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과도한 불안이나 낙관을 경계하고 수급 및 가격 점검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며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전력, 여름철 낙뢰 대응체계 강화

피뢰기 설치 확대... 설비 지속 점검

한국전력이 여름철 집중되는 낙뢰로부터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핵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낙뢰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30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함께 증가하는 낙뢰에 대비해 전국 주요 송전선로에 피뢰기를 설치하고 전력설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6년부터 약 1800억 원의 재원을 집중 투입해 송전철탑에 송전선로용 피뢰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

다. 현재 전국 154kV 송전선로의 피뢰기 설치율은 99% 수준에 이른다.

피뢰기 설치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 송전선로의 낙뢰 고장 건수는 연평균 249건에서 88건으로 급감했다. 약 65%의 저감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낙뢰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 3건 가운데 2건을 완벽히 예방해 낸 수준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여름철 낙뢰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뢰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실시간 설비 감시와 예방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포항 제조업 3분기 경기 '먹구름'... 철강 부진에 투자 위축

포항상의 조사, 제조업 BSI 64로 ↓ 전분기비 11p 낮아 악화 전망 확대
철강업 BSI 62, 관세·내수부진 직격
중동 불안에 원가·물류비 상승 압박
기업 94%, 사업확대·투자계획 없어



포항상공회의소 전경.

포항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3분기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7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4로 집계됐다. 이는 전분기 전망치 75보다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응답 기업의 47.2%는 3분기 경기가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고, 44.5%는 악화, 8.3%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경기 악화를 전망한 기업 비중은 34.9%에서

44.5%로 늘어난 반면, 호전과 보합 전망은 모두 감소했다.

항목별 BSI는 설비투자 83, 매출액 66, 전반적 체감경기 64, 자금사정 63, 영업이익 57로 모두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철강업 BSI가 62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하락했다. 포항상공회

의소는 내수부진과 대미 철강 관세 부담에 더해 EU의 철강 수입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 확대 추진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부담이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업은 BSI 70, 기타 제조업은 67로 조사됐다. 화학업은 중동 정세에 따른 원유·나프타 가격 변동성 확대가, 기타 제조업은 철강업 부진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에 따른 하반기 경영·운영계획은 56.9%가 변동이 없다고 답했고 43.1%는 변동이 있다고 응답했다. 계획변경 내용으로는 가격·납품단가 인상(22.3%)이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재고 확대·선매입(18.5%), 운영비용 절감과 원·부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각 12.3%) 등이 뒤를 이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지역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61.5%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대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역 내수·소비 회복 지연(28.7%), 비용·자금 부담(22.8%), 대외 통상 리스크 증가(15.8%) 등이 꼽혔다. 반면 기대 이유로는 지자체 재정·금융 지원 확대(43.7%),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34.4%),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 강화(21.9%)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지역 내 사업 확대나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94.4%가 현재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지역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와 산업안전 지원체계 구축, 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복합문화공간 라원 공식 개장

경주시는 복합문화공간 라원의 공식 개장 기념식을 29일 열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4월 개장한 라원은 운영 안정화와 관광업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도의회와 유관기관, 관광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방풍림 조성 기념식수도 함께 이뤄졌다. 라원은 약 5만㎡ 부지에 실내 디지털 전시관 2동과 화랑, 야외정원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영양군

자작나무숲 사계절 사진 공모

영양군은 대표 산림 관광자원인 자작나무숲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2026 영양 자작나무숲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작나무숲의 사계절 풍경을 기록하고 우수 작품을 관광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지역의 매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콘테스트는 '2026 영양 자작나무숲: THE ARCHIVE'를 주제로 '영양의 숨겨진 보물, 자작나무숲을 기록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영양군은 자작나무숲의 자연경관과 지역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작품을 발굴해 관광 홍보와 지역 브랜드에 활용할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887@

기장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기장군이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4개월간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청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실태를 조사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가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서울시도 292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모집하는 등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국립창원대학교

KERI와 방산·원전 인재양성

국립창원대학교가 한국전기연구원(KERI)과 손잡고 방산·원전·스마트 제조 분야 교육·연구 협력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양 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공동 연구 개발(R&D) 추진 방향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학교와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연합하는 한편,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김해, 한옥체험관 18억 들여 새단장

13개 객실 리모델링 후 재개관 아트숍·회의실·조식공간 조성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한옥체험관이 오는 7월 1일 재개관한다. 김해시는 노후 시설을 손보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해한옥체험관은 가야문화유적 복원 사업의 하나로 2006년 9월 문을 열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상징인 99칸 가옥을 재현하려 했으나, 사정상 사당채와 안채, 별채, 아래채, 바깥채, 행랑채, 사당 등 85칸 7동 규모로 지어졌다.

체험관은 13개 객실을 갖춘 전통 한옥 숙박시설로, 재개관 전까지 매해 7000명이 넘는 숙박객이 찾아왔다. 김해시가 건립하고 김해문화관광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김해한옥체험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24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예산은 균특전환·도비와 시비를 합쳐

총 18억원이 투입됐고, 3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다. 13개 숙박 객실 전체를 리모델링했으며 숙박동 외 공간에는 ▲아트숍 기쁨 ▲회의실 2곳 ▲조식공간 ▲세탁실 등 편의시설을 새로 마련했다.

김해한옥체험관의 변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9월에는 김해문화관광재단과 SBS가 협업해 체험관 내에 카페와 서점, 굿즈숍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명월'을 열었다. '명월'은 개장 이후 연간 6만여 명이 찾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체험관은 부산김해경전철 수로왕릉역에서 도보권에 있고, 주변에 수로왕릉과 국립김해박물관, 대성동고분군 등 가야 관련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2020년에는 경상남도 '체류형 힐링 숙박 여행지 30선'에 뽑히기도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노후 시설 개선과 관광객 편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MICE 관광 활성화와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와 관련해 공동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북, 호남권 반도체 팹 지정 반발

TK 의원들과 국회서 긴급 회견 입지 기준·평가 결과 공개 요구

경북도와 대구시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전·후공정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 정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시장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비수도권 첨단산업 육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도체 전공정 팹 입지는 산업 생태계와 기업 경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하며, 입지 선정 기준과 과정,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에 '첨단산업 입지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상에 따라 광주·전남 후공정 팹 조성은 존중하지만 전공정 팹까지 지정할 것은 전력·산업용수, 협력업체 생태계, 전문 인력, 물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전남에 전공정 팹이 들어설 경우 대구·경북 반도체 협력기업들의 연쇄 이전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경북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 470여 개와 소부장 전문기업 1,700여 개가 집적돼 있으며, 반도체 특화단지인 전문 인력,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국내 첫 양방향 수소에너지 실증

하이브리드 수소특구 신규 지정

경남도가 국내 최초로 수전해와 연료전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한 양방향 수소 에너지 실증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17~19일 열린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신규 지정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전해 설비와 수소연료전지를 통합한 제품에 대한 시설·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소 생산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수소용품 제조·검사 특례가 부여되면서 상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의 핵심 기술인 rSOC는 잉여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필요시 저장된 수소를 다시 전력으로 전환하는 양방향 운전 방식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활용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실증사업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함안군에서 진행된다. 에이치엔피워, 범한퓨얼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약 203억원 규모다. 수소 생산·저장·발전을 통합 운영하며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한 뒤, 관련 법령 개선과 안전 기준 마련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 국제회의 개최 실적 역대 최고 순위

UIA 세계 22위·아시아 7위 기록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부산이 국제협회연합(UIA)이 집계한 2025년 국제회의 개최 실적에서 세계 22위, 아시아 7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컨벤션협회(ICCA) 평가에서도 세계 49위, 아시아 12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달성했다.

UIA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협회 네트워크 기관으로, 전 세계 비정부기구(NGO)와 정부 간 기관 관련 국제회의의 통계를 집계한다. ICCA는 컨벤션 분야의 국제 통계 기준을 관장하는 기구다. 두 기관 모두 MICE 분야에서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으로 꼽힌다.

이번 UIA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1445개 도시에서 총 9281건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한국은 이 가운데 491건을 개최해 국가별 순위 세계 2위에 올랐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도

2024년 3.87%에서 5.29%로 상승했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216건으로 아시아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이 세계 22위, 인선이 42위로 뒤를 이었다.

부산시는 이번 성과의 배경으로 벡스코(BEXCO)의 컨벤션 시설과 주변 숙박·쇼핑·문화 인프라 간의 연계를 꼽았다. 지역 MICE 업계 협회체인 '부산마이스 얼라이언스(Busan MICE Alliance)'의 행사 지원과 민관 협력도 유치 경쟁력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시와 공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정부 간 회의와 대형 국제학술대회 유치에 집중하고, 지역 업계와 연계한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윤빈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시와 공사, 벡스코, 지역 업계가 함께 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거둔 성과"라며 "유치 전략을 고도화해 부산 MICE 산업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C-프랜차이즈, 자본·콘텐츠 공세... 국내업체 위기감 고조

한국시장 글로벌 테스트베드 낙점 명동·강남 등 서울 핵심상권 안착 “국내 브랜드, 전문성·매력 높아야”



CHAGEE(차지)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 외부

중국외식브랜드(C-프랜차이즈)가 거대 자본과 차별화 콘텐츠를 무기로 국내 F&B 시장의 지평도를 바꾸고 있다. 과거 마라탕이나 휘귀 등 특정 메뉴의 반짝 유행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제는 핵심 상권을 장악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진화한 모양새다. 특히 현지 시장의 포화와 내수 침체 돌파구를 찾으려는 중국 대형 브랜드들이 유행에 민감한 한국을 글로벌 진출의 최전선 테스트베드로 낙점하면서 이 같은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카페·디저트 업계가 있다. 중국 전역에 3만여 개 매장을 거느린 연 매출 9조 원 규모의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커피(luckin coffee)가 최근 국내 상표권 및 브랜드 로고 등록을 완료하며 한국 상륙을 가시화했다. 미국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블루보틀까지 인수하며 덩치를 키운 루이싱커피의 등판 소식이 국내 커피 업계는 긴장 분위기가 역력하다.

차, 밀키트 브랜드의 성장세도 매섭다. 일명 ‘정원영 밀키트’로 알려진 차지(Chagee·파왕차회)는 지난 4월 상륙 이후 한 달 만에 강남, 용산, 신촌에 이어 역삼, 시청, 건대 등 서울 주요 상권에 깃발을 꽂았다. 오픈 첫날 4시간씩 대기줄이

늘어서는 가 하면 앱 주문 시작 15초 만에 1500잔이 뚝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선발주자인 차백도 역시 국내 진출 2년 만에 매장을 20개 이상으로 늘렸고, 헤이티와 아운티제니 등도 홍대와 명동 등에서 젊은 소비층을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고 있다.

이같은 디저트·카페 브랜드의 돌풍은 앞서 국내 시장에 단단히 뿌리내린 중식 프랜차이즈들의 성공이 밑거름이 됐다.

프리미엄 휘귀 브랜드 하이디라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1177억 원으로 2020년(140억 원)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83.6% 급증한 202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 시장의 막강한 티키타위를 경험한 하이디라오는 중국 본토 매장에도 없는 양꼬치 전문점 ‘하이하이숯불꼬치’ 1호점

을 서울 명동에 선보이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가맹 사업을 본격화한 마라탕 브랜드 ‘탕화쿵푸’ 역시 전국 매장 수 560개를 돌파하며 영토를 다지는 중이다.

C-프랜차이즈가 국내 시장에서 순항하는 비결로는 눈높아진 한국 소비자의 취향을 정확히 저격할 점이 꼽힌다.

과거 중국 음식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위생 관리 부실 편견을 대규모 자본 기반의 규격화된 시스템과 청결함으로 정면 돌파했다.

여기에 취향대로 소스와 토핑을 고르는 커스터마이징 재미, 하이디라오의 변검 공연이나 차지의 세련된 플래그십 스토어 등 매장 자체를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바꾼 체험형 콘텐츠가 주효했다.

틱톡 등 SNS를 중심으로 ‘상하이 버터떡’, ‘양간루’ 같은 중국 식문화가 Z세대의 주류 트렌드로 부상한 점, 알리테

무 등 C-커머스를 통해 중국 플랫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점도 연착륙의 발판이 됐다. 실제로 성인 10명 중 7명(71.1%)은 최근 1년 사이 중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 거부감이 떨어진 상태.

그러나 초반의 화제성이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뿐 아니라 매가커피 등 토종 저가 브랜드들이 총출동해 버려 있는 한국 시장은 진입보다 생존이 훨씬 까다로운 레드오션이기 때문이다.

또 거대 자본과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브랜드들이 저가 공세를 펼칠 경우, 상대적으로 체급이 작은 국내 중소형 프랜차이즈나 골목상권의 개인 카페들이 매출 감소와 마진을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륙하는 중국 브랜드들은 단순히 맛을 넘어 공간과 서비스, 문화 콘텐츠를 통틀어 하나의 거대한 ‘고객 경험’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 브랜드들 역시 출혈적인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고유의 전문성과 독자적인 브랜드 매력도를 높여야만 거센 차이나 공세 속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ree6834@metroseoul.co.kr

현대백, ISO 45001 인증

현대백화점은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표준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이다.

이번 인증은 현대백화점 본사를 포함한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대백화점은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업장 개선에 반영한 점과 품역·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멤버스 글로벌 멤버십 포털 개선

롯데멤버스가 외국인 전용 ‘엘포인트 글로벌 멤버십’ 포털을 리뉴얼하고 외국인 회원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연내 외국인 회원 수를 20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해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멤버십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회원가입 중심이던 기존 포털을 실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메인 화면에서 엘포인트 적립·사용 바코드와 보유 포인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대상 이벤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디자인에는 경복궁과 롯데월드타워 등 국내 랜드마크와 심장생 문양을 활용해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롯데멤버스는 앞으로 엘포인트 이용 내역 조회, 멤버십 카드 관리, 제휴사별 맞춤형 쿠폰 등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기능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파리바게뜨, 英 ‘리치몬드점’ 개점... 유럽시장 공략 박차

런던 내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역 “K-베이커리 위상 높아 나갈 것”



파리바게뜨 영국 리치몬드점 외관. /SPC

파리바게뜨가 영국 런던의 프리미엄 주거 상권인 리치몬드에 7호점을 열며 현지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영국 런던 리치몬드(Richmond)에 영국 7호 매장인 ‘리치몬드점’을 개점했다고 30일 밝혔다.

리치몬드점은 95석 규모로 리치몬드 중심 상권인 조지 스트리트(George Street)에 들어섰다. 리치몬드는 런던 내 대표적인 고급 주거지역으로 구매력이 높은 소비층이 밀집한 프리미엄 상권이 다. 특히 조지 스트리트는 리치몬드역

터, 우드톤 인터리어를 적용해 모던한 분위기를 구현했다. 메뉴는 영국과 유럽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크루아상 샌드위치와 케이크, 음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지난 3월 런던 대표 관광·문화 상권인 사우스뱅크(South Bank)에 126석 규모의 영국 6호점을 개점한 바 있다. 사우스뱅크는 런던아이와 테이트 모던, 내셔널 시어터 등이 위치한 대표 복합 상권이다.

영국 시장에서는 가맹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2022년 배터시 파워 스테이션점과 켄싱턴 하이 스트리트점을 잇달아 열며 영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24년 첫 가맹점인 캐나다 워프점을 시작으로 이번 리치몬드점까지 총 5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런던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현지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며 “빵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K-베이커리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73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현대그린푸드, 사내카페 경쟁력 강화... 건강 중심 브랜드 재정비

저당 등 메뉴 다양화... 단독매장 확대 현대그린푸드가 단체급식 부가서비스로 운영하던 사내 카페 사업을 건강 중심 브랜드로 재정비하며 본격적인 확장에 나선다.

현대그린푸드는 전국 140여 개 사내 카페 브랜드를 ‘카페 그리팅’으로 순차 전환하고, 저당·저칼로리·저지방인 중심의 건강 메뉴를 전면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새 브랜드는 자사 케어푸드 브랜드 ‘그리팅(GREATING)’을 기반으로 하며, 식물성 음료와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음료 라인업을 확대한다.

사내 카페 전체 메뉴를 저당·저칼로

리·저지방의 3저(低) 메뉴 또는 단백질·식이섬유·유산균 등 기능성 성분을 추가한 메뉴로 바꾼다. 음료에 사용되는 시럽은 알룰로스 등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보다 당 함량을 60% 가량 줄이고, 듀유·오토음료·아몬드음료 등 식물성 음료와 락토프리(유당 제거) 우유를 도입해 이용객의 선택 폭도 넓혔다. 또한, 생과일 주스나 차(茶)메뉴는 ‘프로틴 바나나주스’, ‘비타민 콤파치’ 등과 같이 기능성 성분을 추가했다.

커피 메뉴에는 자체 개발 원두 ‘그리팅 빈’ 4종(데일리·클래식·블라썸·스위트)을 적용해 커피인 부담을 줄이고, 기능성과 스페셜티 블렌딩을 강화한다. ESG 요소

도 함께 반영해 친환경 농산물 사용과 재 활용 가구 도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가 이처럼 사내 카페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은 사내 카페가 더 이상 부가서비스가 아닌 단체급식 수주와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형 사업장 운영권 입찰 시 사내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것이 필수 조건인 경우가 점차 늘면서 식당 운영 역량만큼이나 사내 카페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그린푸드가 최근 5년간 신규 수주한 단체급식 사업장의 35%가 사내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내 카페 사업장 수는 사업을 본격 시작한 지난 2021년과 비교해 두 배 가량 증가했고, 매출도 같은 기간 120% 늘었다.

현대그린푸드는 현재 140여 개 사내 카페를 3년 내 180곳 이상으로 늘리고, 단독 카페 매장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티백 ‘그리팅티’를 활용한 신메뉴를 상반기 중 도입하는 등 사내 카페 메뉴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라며 “단체급식 사업을 통해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카페 그리팅을 통해 건강한 음료와 디저트까지 선보여 ‘사람들의 식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11번가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

11번가가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의 온라인 구매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통시장·상점가 전용 상품권이다. 현재 11번가에는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00곳이 입점해 있으며, 약 18만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1번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을 모은 전용관 ‘11번가 온누리마켓’도 함께 선보였다. 전용관에서는 디지털·가전, 리빙, 신선·가공식품, 패션 등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며, MD 추천 상품 코너도 운영한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2%를 11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김서현 기자

세포·유전자 치료제 규제 푼다... K-바이오 개발 '탄력'

자가유래 면역세포 위험도 하향
글로벌 표준 선도 기반 마련 기대
GC셀·차바이오·HLB '속도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사위원회는 최근 배양된 자가유래 면역세포(NK·T·NKT·CIK 세포 등)의 위험도를 기존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첨단재생 바이오법 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도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 적용된 첫 사례다.

그동안 자가유래 면역세포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체외 배양을 거친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중위험군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치료계획 심의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연구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GC셀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GC그룹

다. 배병준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은 "맹목적 완화가 아닌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환자 치료 기회를 확보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책적 훈풍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곳은 GC그룹이다. GC그룹의 GC셀은 동종 NK 세포치료제 'AlloNK(AB-101)'를 앞세워 글로벌 상업화 선두 주자로 시장 선점에 나섰다.

NK 세포치료제는 환자 본인의 세포를 배양하는 CAR-T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기증자의 세포를 활용한다. AlloNK(AB-101)의 경우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RA)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a상에서 환자의 71%가 관절염 증상 개선 50%에 도달했다. 고감도 분석에서는 평가 가능 환자 전원에서 질환의 근본 원인인 B세포가 완전히 고갈되는 고무적인 효능이 나타났다.

특히 GC셀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통상적인 두 번의 임상 대신 단일 임상 결과만으로 품목허가(BLA) 신청이 가능한 '단일 등록용 임상 3상' 설계에 합의했다. 올해 하반기 첫 환자 투여를 시작해 오는 2029년 FDA 허가 신청을 완료한다

는 목표다.

차바이오그룹은 차세대 면역세포치료제인 'CAR-NK'의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영역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선도기업 밀테나바이오테크와 손잡고 동종 CAR-NK 기반 항암 세포치료제 'CHACAR-NK-201' 개발에 착수했다. 밀테나바이오테크의 고효율·저비용 'BaEV 렌터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을 도입해 대량생산 자동화 공정 및 상업적 확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차바이오의 세포·유전자 치료제 전문 CDMO 자회사인 마티카바이오랩스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마티카바이오랩스는 최근 유사이아테라퓨틱스와 혈액암 면역세포 치료제 'UCI-101'의 위탁생산 및 품질시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CAR-T를 넘어 CAR-NK 분야로 CDMO 사업 영토를 확대할 방침이다.

HLB그룹은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를 통해 기존 CAR-T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고유의 플랫폼 기술로

승부수를 던졌다.

기존 CAR-T 치료제는 T세포가 체내에서 쉽게 지치는 'T세포 탈진' 문제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 반면 베리스모가 보유한 'KIR-CAR 플랫폼'은 자연 면역 체계를 모방한 다중 사슬 구조로 설계되어 T세포의 탈진을 낮추고 체내 지속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베리스모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SynKIR-110(진행성 난소암·중피종·담관암 등 고형암타겟)'과 'SynKIR-310(혈액암타겟)'의 임상 1상 초기 결과를 앞두고 있다.

국내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고형암 등 전통적인 분야에서 자가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하는 기술력이 국내 바이오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유연한 규제 합리화가 이뤄지는 등 K바이오가 미래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표준화를 이뤘다면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LG화학, 미개척 항암시장 공략 나선다

항암신약 임상 1·2상 IND 승인 받아
미개척 TP53 변이 표적 항암제 개발

LG화학이 미개척 항암 분야에서 임상에 박차를 가한다. LG화학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항암신약 후보물질 'LG00313112' 임상 1/2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임상에서 안전성, 내약성, 권장 용량, 유효성 등을 조기 확인할 계획이다. 1상과 2상을 하나의 프로토콜로 통합해 초기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1상은 난소암, 폐암, 유방암 등 TP53 Y220C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진행성 고형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후 2상에서는 1상 결과를 바탕으로 유효성을 본격 평가한다.

'LG00313112'는 전체 암환자의 1~3%에서 확인되는 TP53 Y220C 유전자 변이를 공략하는 기전을 갖췄다. 해당 변이에 의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진 p53 단백질을 안정화해 본래의 종양 억제 기능을 회복시킨다. 특히 동일 계열 최초의 '공유결합' 기반 약물로 표적에 대한 결합력을 높이고 약효를 지속하도록 설계됐다.

실제 전임상 결과, 낮은 용량으로도 우월한 항암 효능과 약물 반응 지속성을 보였다. 여러 종양에서 발현되는 KRAS 변이를 동시 동반한 종양모델에서도 항암

활성 유지가 확인된 바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CI)가 구축한 암 유전체 지도 데이터에 따르면 'TP53' 유전자 변이 암환자들의 치료 후 생존기간은 평균 29개월이다. 해당 변이가 없는 암환자들의 치료 후 생존기간 63개월에 비해 절반 이상 짧다. 현재까지 해당 변이 관련 상용화 약물은 없다.

LG화학 김혜진 임상개발그룹장은 "명확한 바이오마커 기반 정밀의료 접근을 통해 치료 반응이 기대되는 환자를 효율적으로 선별해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겠다"며 "암 환자들이 더 오래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마이핍' 3종 /동국제약

"누르면 영양이 쏙"
동국제약 '마이핍'

동국제약은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중제형 건강관리 음료 '마이핍' 3종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이핍은 다이소 제품으로는 최초의 누름형 음료다. 상단 뚜껑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정체가 액상으로 내려와 동시에 섭취가 가능하다. 특히 '누르면 뚫린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제품 특색을 강조해 준다.

'마이핍 푸룬&식이섬유'는 푸룬농축액 1000mg과 식이섬유(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3g을 함유한다. 평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거나 가벼운 하루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해 준다.

/이청하 기자

파마리서치, 애프터케어 라인업 강화

브랜드 '리쥬덱스' 론칭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가 애프터케어 브랜드 '리쥬덱스'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리쥬덱스는 전문 피부 관리 후 민감해진 피부를 위한 브랜드다. 기존 브랜드 리쥬더마 EX를 재단장해 크림 중심의 제품군에 앰플, 미스트, 마스크팩 등을 더했다. 피부 상태에 따른 단계별 관리를 돕는다.

해당 제품들은 파마리서치가 독자 구축한 특허 성분인 c-PDRN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상피세포성장인자(EGF), 시카, 판테놀, 트라넥삼산 등 피부 재생 성분을 제품별 특성에 맞게 배합했다. 전문 피부 관리 후 나타날 수 있는 자극, 건조함, 피부 흔적 등에 효과를 갖췄다.

이번 신제품인 '더마 리페어링 크림'은 피부 진정과 피부 장벽 강화에 쓰인다. 국내 최초로 리쥬란 등 전문 피부 관리 후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확보했다. 이 제품

/이청하 기자



애프터케어 브랜드 '리쥬덱스' /파마리서치

사용 후 약 4배의 응급 진정 효과가 확인됐다.

'더마 리페어링 드레싱 마스크'는 크림 에센스를 함유한 시트 제품이다. 거즈 형태를 적용해 피부 밀착력을 높였다. 더마 리페어링 솔루션 앰플은 피부 흔적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더마 리페어링 크림 미스트'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수시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미세 입자가 피부에 고르게 분사되면서 보습 유지 등에 도움을 준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국내 뷰티업계 첫 'RE100'

재생에너지 100% 전환

아모레퍼시픽이 환경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을 적극 실천해 '재생에너지 전환 100%(RE100)'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 운영기관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글로벌 사업장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식 검증받았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국내 뷰티 업계에서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데 이어 2025년 국내 민간 기업이 이룬 첫 성과다.

아모레퍼시픽은 전체 재생전력 전환율을 2020년 5% 수준에서 매년 높였고 전사 재생전력 전환을 2025년 완료했다. 초기 단계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 및 가상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생 에너지를 꾸준히 조달해 왔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장의 유휴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자가 태양광 설비를 2011년 196kW에서 현재 약 7145kW 규모로 확대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은 공급망 전반에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글로벌 환경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의 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수자원 관리 부문은 물론, 공급망 참여 평가(SEA)에서도 최고 등급 'A'를 획득했다. 또 주요 협력사들과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하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올리버 윌슨 더 클라이밋 그룹 RE100 총괄은 "아모레퍼시픽은 재생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체계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아모레퍼시픽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AI 신약개발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제약바이오협회, 내달 7일까지 예선
자율형 가설 생성·검증 등 4개 분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 연구개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 발굴에 나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4회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경진대회'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회 주제는 '신약개발 단계별 특화 에이전트 AI 설계 및 구현'이다. 공모 분야는 ▲자율형 가설 생성 및 검증 ▲도구 활용 기반의 분자 최적화 루프 ▲규제 대응 및 지능형 임상 설계 ▲융합 분야 등 총 4개다. AI 신약개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3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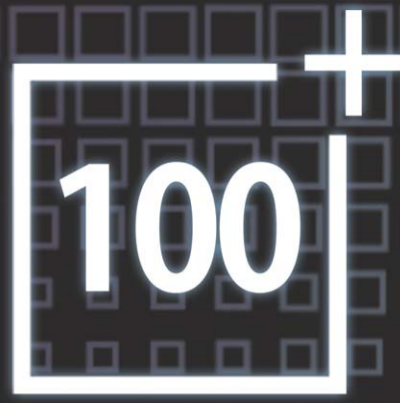
예선은 오는 8월 7일까지, 본선은 9월 7

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결과 발표일은 11월 6일이다.

아울러 올해 4회째 열리는 이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BK21이 공동 주관한다.

대상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 최우수상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상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각 상금 300만원, 장려상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BK21 융합중개의과학교육연구단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전달한다. 후원사상에는 후원사상장과 150만원의 상금이 있다.

/이청하 기자



인공지능 (AI) 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2026년 7월 9일(목) 오후2시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행사개요

- 행사명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인공지능(AI)시대, 자산관리 전략도 달라져야
- 일시 2026년 7월 9일(목)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2026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2시 30분 이후에는 행사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선착순 100명, 택1)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송홍선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AI와 자본시장, 기회와 위험
강연	14:50~15:20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15:20~15:50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 본부장
	15:50~16:20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교수
	16:2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군 장병에 버거 600인분 전달

한국맥도날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 제23경비 여단 장병들에게 버거와 음료 600인분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해안 경계 작전을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표 메뉴인 '빅맥'과 음료를 장병들에게 제공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국맥도날드



KT, 'ESG 보고서' 발간... AX 기반 전략 공개

KT는 '2026년 KT ESG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보고서는 KT의 AX 플랫폼 컴퍼니 비전을 기반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분야별 경영 성과와 중장기 전략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자료에는 GRI 스탠더드, UN 글로벌 컴팩트(UNGC), TCFD, SASB 등 국제 표준을 반영했다. /KT



삼표그룹, 자립준비청년과 유기동물 봉사활동

삼표그룹의 사내 봉사동호회 '블루허그'가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경기 파주에 위치한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를 방문해 시설 환경 정비와 유기동물 돌봄 봉사활동을 펼쳤다. 30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된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동시에 삼표그룹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의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삼표그룹



코웨이 블루윌스, '우정사업본부장배 대회' 우승

코웨이의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윌스'가 '제22회 우정사업본부장배 휠체어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코웨이 블루윌스는 지난 4월 홀트전국휠체어농구대회 우승에 이어 2026년 전국대회 무패 2관왕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김영무 감독이 우수감독상을, 박준성 선수가 최우수선수상(MVP)을 수상하며 팀과 개인 모두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코웨이



동화약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선포

동화약품이 상생과 효율의 가치를 바탕으로 준법 경영을 강화한다. 동화약품은 지난 29일 서울 순화동 본사에서 '2026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왼쪽 첫 번째)와 임직원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화약품

LG엔솔, 첫 사외이사 의장 선임... ESG 경영 가속

**'ESG Report 2025' 발간
박진규 이사회 의장 선임으로
거버넌스 공정성·투명성 높여**

LG에너지솔루션이 사외이사를 첫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공정 혁신과 투명한 거버넌스를 앞세워 데이터·서비스 기반 사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ESG) 성과를 담은 'LG에너지솔루션 ESG Report 2025'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화학물질(NMP·N-Methyl-2-Pyrrolidone) 용매 재활용 신기술 글로벌 사업장 확대, 최초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ESG 정보관리 및 공개 규정 등 핵심 ESG 경영 활동 성과가 담겼다.



LG에너지솔루션 ESG Report 2025 발간. /LG에너지솔루션

동 성과가 담겼다.

환경 분야에서는 중국 남경 법원에서 개발해 검증을 마친 NMP 용매의 재활용 신기술을 글로벌 사업장으로 확대한 성과를 공개했다. NMP는 양극재 제조공정에서 소재들을 밀착시키기 위

해 사용하는 필수 용액이다. 기존 80% 수준의 NMP 재활용률을 97%까지 올렸다.

지배구조 및 투명 경영 분야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임과 내부 통제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

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박진규 사외이사를 최초로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현재 전체 이사 7명 중 과반인 4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ESG 정보관리 및 공개 규정'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를 통해 ESG 공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강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K-벤처 글로벌화·유니콘기업 육성

벤처투자-투자공사와 '맞손'

한국벤처투자자와 한국투자공사가 K-벤처 글로벌화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벤처투자는 30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투자공사 본사에서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한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후보 기업 공동 IR 추진 ▲각 기관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한 기업 및 투자자 간 네트워크 확대 ▲국의 창업기업 및 글로벌 벤처캐피탈에 대한 공동 출·투자 기회 모색 등이 포함돼 있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성장 단계의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선 국내외 투자자와 접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의 해외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유망 기업



(왼쪽부터)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투자공사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

의 글로벌 진출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한국투자공사와의 업무협약은 우리 벤처투자 생태계가 글로벌로 도약하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자본이 국경을 넘어 국내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고,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이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벤처협, '이달의 우수벤처' 2개사 선정

엔피케이·셀아이콘랩 선정

벤처기업협회가 두번째 '이달의 우수벤처'로 'K-답테크' 부문에서 엔피케이, 'K-스케일업' 부문에서 셀아이콘랩을 각각 선정했다.

30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이달의 우수벤처 선정사업은 매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가운데 혁신성과 성장성이 탁월한 벤처기업을 골라 벤처기업의 도전과 혁신 사례를 확산하고 벤처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엔피케이는 혐기성 미생물인 낙산균(Clostridium butyricum S-45-5)을 국내 최초로 대량 배양·상용화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셀아이콘랩은 유효성분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관계없이 피부막·세포막·점막·종양막 등 다양한 생체막을 투과하여 전달 효율을 높이는 '생체막 투과D



엔피케이 김상준 대표(오른쪽)와 협회 문희준 커뮤니케이션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셀아이콘랩 성민규 대표(왼쪽)와 협회 이민형 혁신정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DS 플랫폼' 원천기술과 연노화 펩타이드 신소재를 함께 보유한 플랫폼 바이오 테크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더본코리아, 지난해 점주에 435억 지원

상생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회의

더본코리아가 출범 1년을 맞은 상생위원회를 통해 가맹점 지원 성과를 공개하고 브랜드별 소통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가맹점 개선 과제 대부분을 완료했으며, 점주 지원 규모는 약 43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에서 상생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생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맹점 대표, 본사 임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출범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인진걸 소장, 박경준 변호사, 유효상 유니콘경제연구원장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 브랜드 간 담회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 130건 가운데 진행 중인 2건을 제외한 128건을 완

료했다. 올해도 7월까지 외식 브랜드를 대상으로 총 90회의 소규모 연수회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개선 과제의 약 80%가 이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점주 발주용 OMS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추진, 배달 플랫폼 거래 조건 개선 논의, 민생회복 지원금 홍보물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배달 매출 연동 로열티 인하, 고정 로열티 분납 및 연차별 인하, 월세 카드결제 제도 도입 등 비용 부담 완화방안도 추진했다. 브랜드별 통합 할인전과 옥외광고, 유튜브 마케팅 재개 등 매출 활성화 지원도 병행했으며, 회사는 지난해 통합 할인전 지원금을 포함한 점주 지원 규모가 약 435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앞으로 기존 12개 브랜드 협의회에 6개를 추가해 소통 체계를 확대하고, 대외 이슈 발생 시 본사와 점주가 함께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세계원자과학자협회, 미원평화상 수상

'인류 종말 시계' 발표

'인류 종말 시계'를 발표해 온 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29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제2회 미원평화상 수상자 발표 행사를 열고, 세계원자과학자협회(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를 수상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원평화상 선정위원회는 세계원자과학자협회가 핵무기와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공론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선정위원장은 "세계원

자과학자협회는 지난 80여 년간 인류 종말 시계를 통해 인류가 파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가시화하고, 정책 결정자와 대중이 과학에 기반한 평화와 인간 안보를 고민하도록 기여했다"고 밝혔다.

세계원자과학자협회는 1945년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핵기술의 윤리적 책임을 알리기 위해 설립한 독립 비영리 기관이다. 1947년부터 매년 '인류 종말 시계'를 발표하며 핵무기, 기후위기,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글로벌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왔다. 이 시계는 인류가 스스로 초래한 파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자정까지 남은 시간'으로 표현한다.

/이현진 기자 lhj@

인사 ◆구미시 ◇4급 승진 △첨단산업국장 조영열 △사회복지국장 이정화 △도시건설국장 강신해 ◇4급 전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은희 △환경교통국장 박영일 △선산출장소장 남병국

부음 ▲김외순(스텔라)씨 별세, 장경익(스튜디오드래곤 대표)·현교·선경씨 모친상=29일, 경북 청도 청도대남병원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7월1일 오전 7시20분. 054-372-3560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바질에 토마토를

REALLY?

버거를 더 맛있게

NAPOLINI!



By chef 나폴리 맛피아

나폴리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이 가야 멀리 간다?



김희석
칼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개인의 자산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한때 기록한 숫자다.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 그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기원전 2333년 10월 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매일 9억4000만 원씩. 그래야 겨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스페이스X 상징으로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지면서 보유 지분의 가치가 상승한 결과다. 시장이 그 기업의 미래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부를 처음 마주하고 있다.

마침 전 세계는 월드컵 열기로 뜨겁다. 축구는 스타 한 명이 승리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골은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승리는 열한 명이 함께 만든다. 미드필더의 패스와 수비수의 헌신, 골키퍼의 선방, 감독의 전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훈련이 함

게 만들어 낸 결과다. 경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혁신적인 기업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뛰어난 기업가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열며, 우리의 삶을 바꾼다.

스페이스X의 성공 역시 머스크 혼자 만든 결과의 아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연구진의 도전, 실패를 견뎌 낸 조직, 위험을 감수한 투자자, 정부의 발주와 우주산업 생태계, 그리고 시장의 신뢰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다. 그 결과 기업의 가치는 크게 높아졌고, 최대주인 머스크의 자산 가치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에 이르렀다.

성공은 문제될 것이 없다. 혁신은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 질문은 성공 이후에 시작된다. 그 성공은 사회를 얼마나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했는가? 기술은 인류를 더 멀리 데려가고 있다. 하지만 그 기술이 만들어 낸 부 역시 모두를 함께 앞으로 이끌고 있는가? 스페이스X는 인류를 우주라는 더 먼 세계로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기업은 우리에게 지구 위의 질문 하나를 남긴다. 우리는 정말 함께 더 멀리 가고 있는가?

오늘날 양극화는 더 이상 낮은 단어가 아니다. 자산은 자산을 낳고, 기술은 더 큰 기술을 낳는다. 혁신의 속도는 빨라지는데 미래

를 향한 사람들의 불안도 함께 커지고 있다. 풍요는 커졌지만 그 풍요가 모두에게 같은 속도로, 같은 온도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리미타리아니즘(Limitarianism)'이라는 철학적인어도 등장했다.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부에도 일정한 사회적 한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에 동의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런 논의가 진지하게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의 부의 집중이 인류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같이 가야 멀리 간다'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다.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 우리는 그 오래된 속담을 다시 읽게 된다. 혼자서 더 빨리 갈 수는 있다. 하지만 함께 더 멀리 가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다.

스페이스X는 오늘도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린다. 인류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회를 만드는 기준은 우주를 얼마나 멀리 갔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는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전진하는 사회다. '같이 가야 멀리 간다'는 오래된 말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

/vbkim11@metroseoul.co.kr

해외정책에 울고 웃는 K-배터리의 현실



김수첩
원관희
(산업부)

K-배터리는 언제까지 해외 정책만 바라봐야 할까. 미국의 법안 하나에 입항 전망이 바뀌고 유럽의 규제 변화에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해외 정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 불황기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지 않도록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그동안 전기차 시장 성장에 맞춰 공장을 짓고 공급망을 넓혀왔지만 현재는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의 공급 확대가 겹치며 수익성 압박과 투자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업황이 꺾인 상황에서도 미래 생산 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세액공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업황 부진으로 이익이 줄면서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당장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공제액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현금 유동성을 보강하는 지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배터리 생산 단계의 현금흐름을 보강하고 있고 캐나다도 청정기술 제조 투자에 현금형 세액공제를 적용해 투자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국내 지원 체계도 기업의 투자 여력을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배터리 산업은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자 규모도 크다. 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의 일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실적 부진을 넘어 국내 배터리 생태계가 축적해 온 기술과 인력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지원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기본 장치다. 경쟁국들이 세제와 금융, 인프라 지원을 묶어 배터리 산업을 키우는 동안 국내 지원 체계는 여전히 기업의 실제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K-배터리 지원책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자 초기에는 투자 부담을 낮추고 양산 단계에서는 생산 실적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업황 부진기에도 기업의 투자 지속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해외 정책 변화가 만든 일시적 기회를 국내 기업의 투자 지속성으로 연결하려면 세제와 금융, 수요 창출을 묶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wkh@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5월 1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0년생**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72년생** 크게 운이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습니다. **84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49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61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아가면 막힘이 없겠습니다. **73년생** 하루종일 기본이 좋은 날입니다. **85년생** 바라는 것은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50년생 하늘과 땅이 다 같이 환합니다. **62년생** 기다리던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74년생** 작은 근심을 버리면 길합니다. **86년생**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51년생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63년생** 너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5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87년생** 지금의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반성하지 마세요.



52년생 기다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64년생** 학업운이 매우 좋습니다. **76년생** 사업을 하시는 분이려면 매우 좋습니다. **88년생** 남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53년생 몸이 안 좋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65년생**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77년생** 사방이 험한 산들이 가마막혀 있습니다. **89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은 만족지 못합니다.



54년생 새로운 일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 입니다. **66년생** 거 배우자와 충돌의 기미가 보이니 먼저 양보하세요. **78년생**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90년생**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준비하세요.



55년생 속마음을 상대에게 시원히 얘기하세요. **67년생** 인생무상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하루입니다. **79년생** 닭띠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91년생** 설부터 움직이지 말고 기회를 보세요.



56년생 몸과 마음이 정갈하지 못하면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68년생** 집중하고 노력하면 길합니다. **80년생** 몸가짐을 잘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92년생** 스트레스를 바로 푸세요.



57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69년생** 어려운일이 생기면 주위 조인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81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3년생** 초행길을 갈 때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8년생 항상 자신에 유의하세요. **70년생** 보람이 있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82년생** 대범하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94년생** 뭇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도록 하세요.



59년생 자녀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71년생** 돈거래는 하지 마세요. **83년생** 여 시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95년생**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입니다.



김상회의四季 놀아도 절마당에서

“놀아도 절마당에서 놀아라.”라고 하듯 불자라면 초하루와 보름은 되도록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은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신자의 기본의 무이자 도리로 알고 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초하루와 보름에 법회와 예불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사찰마다 모시고 있는 불보살님에 따라 약사재 일이나 관음재일 또는 지장 재일 등의 명칭 아래 기도한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산자락마다 절이나 암자가 위치하여 있고 험준한 산이라 할지라도 절이 들어선 곳은 풍광이 수려한 데다가 물소리 바람 소리까지 어우러져 감탄을 금치 못한다.

또 하나 천년 고찰의 경우에 사찰이 건립되거나 암자가 세워진 배경을 보면 한결같이 원효대사, 자장율사, 의상대사 등 삼국시대로부터 이름난 고승이나 선사들이 세웠거나 수행을 한 터가 대부분으로 영험한 일들이 함께 서려 있는 장소들이다. 큰 사찰일수록 일주문에 사천왕상을 통해서 절 마당에 들어가게 된다. 사천왕들은 외양부터가 무시무시하다. 특 불겨진 눈에 짐승의 이빨 모습인데 얼굴은 잔뜩 화가 난 형상처럼 보인다. 그래서 절 문을 넘기를 겁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사천왕들은 말 그대로 동서남북을 지키는 호법신들로서 악하고 해로운 기운들을 막아주며 불법을 수호하는 선 신이다. 수행에 마음을 둔 출가자들과 재가불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보호자이다. 팔자는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근처에 있는 월광사가 지역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새롭게 불사 원력을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신도님들의 원력까지 더해져 시작이 반이라고 믿고 있기에 힘닿는 호법신들도, 함께 해주실 것으로 청정하게 발원을 드러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4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글로벌대학 평가 '칼바람'... 충북대·교통대 지정취소 위기

교육부, 27개 혁신모델 성과 공개 통합지연 모델 국고지원 정지 수준 경상국립대·포항공대 성과 인정 창원대·승강기대 유일한 S등급 우수대 추가 예산, 부진대 감액



충북대학교 전경. /뉴스시스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성과평가에서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모델이 지정취소 절차 대상에 올랐다.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 동·연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 순천향대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30일 글로벌대학 27개 모델, 35개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성과 우수 대학에는 최대 28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금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는 핵심 혁신과제 이행이 지연·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D등급 2회 누적 요건에 해당했으며, 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글로벌대학 지정취소 절차가 시작된다.

이번 평가는 2023년 선정된 10개 모델에 대한 동행평가와 2024~2025년 선정된

17개 모델에 대한 연차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2023년 선정 모델에 대한 동행평가에서는 경상국립대와 포항공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분야 특성화를 위한 조직·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을, 포항공대는 교육·연구·국제화 전반의 혁신과 연구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

았다. 반면 통합충북대·국립한국교통대 모델은 대학 통합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진해 왔으나, 통합을 위한 학사·조직체계 개편과 캠퍼스 특성화 등 주요 과제 이행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부는 이 모델이 지정취소 요건인 D등급 2회 누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평가등급이 최종 확정되면 지정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관련 국고지원금 집행은 정지된다.

2024년 선정 모델에 대한 연차평가에서는 통합국립창원대·한국승강기대가 평가 대상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국립목포대도 대학 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국제과제 수주와 연구거점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반면 연합동아대·동서대 모델은 연합을 통한 차별화된 혁신성과와 핵심 과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양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통합원광대, 한동대 등은 일부 성과지표 달성도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5년 선정 모델에 대한 연차평가에서는 순천향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순천향대는 AI의료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아산·천안·내포를 잇는 교육·실증·상용화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AI의료융합교육원 설립과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의료와 공학을 결합한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경성대, 제주대, 통합조선대·조선간호대, 한서대 등은 사업 집행과 지원화 기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 국고지원금을 확정한다. S·A등급을 받은 우수대학에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8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반면 C·D등급을 받은 대학은 지원금이 감액된다. 연차평가에서는 15% 이상, 동행평가에서는 20% 이상 지원금이 삭감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삭감 폭은 커진다.

처음으로 D등급을 받은 대학에는 성과 미흡 원인 분석과 보완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토해 지속 지원 여부와 지원금 삭감 규모를 결정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10일까지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 "글로벌대학 사업은 선연적 혁신계획이 아니라 지역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인 만큼, 앞으로도 실행이 늦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대학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4주기 대학기관평가 첫해부터 '격차'

대학평가원, 2026년 결과 발표 6곳 조건부·2곳 불인증 판정 신청대 42.1% 완전 통과 못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신청한 대학 19곳 중 11곳이 인증 판정을 받았다. 6곳은 조건부인증, 2곳은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서 4주기 첫해 평가부터 대학별 교육여건과 질 관리 체계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별칭 한국대학평가원은 30일 '2026년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발표하고, 11개교에 인증, 6개교에 조건부인증, 2개교에 불인증 판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인증·조건부인

증 대학은 17개교이며, 조건부인증 대학은 1년간 개선 실적을 바탕으로 보완평가를 받게 된다. 올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대학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꽃동네대, 경운대, 국립군산대, 극동대, 동국대, 동서대, 숭실대, 영남신학대, 울산대, 을지대, 인제대, 인천대, 전북대, 초당대, 호원대, 홍익대 등 17개교다. 다만 평가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인증과 조건부인증 대학이 구분돼 있지 않다. 불인증 2개교의 대학명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조건부인증과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모두 8곳으로, 신청 대학의 42.1%가 완전 인증을 받지 못했다. 4주기 첫 평가부터 적지 않은 대학이 보완평가나 재신청 대상에 오르면서, 대학별 교육

여건과 질 관리 체계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4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첫해 평가다. 4주기 평가는 4개 평가영역과 24개 평가준거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인증을 받으려면 4개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평가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적용돼 대학별 특성과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평가원은 이번 평가를 위해 7개 평가단, 35명의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평가는 서면평가,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 적합성 검토, 검증평가, 대학 의견 수렴과 이의신청, 의견서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인천경제청, 경자구역 평가 8년연속 최우수

FDI 목표치 138.2% 달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전략산업 투자유치부터 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까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져온 결과다. 이를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인천경제청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뚫고 2025년 FDI 목표치의 138.2%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씨타리우스코리아, 고려아연, 테르메코리아 등 15개 글로벌 선도 기업의 투자를 성공적으

로 견인하며, 핵심 전략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도약했다.

아울러 'IFEZ 비전·전략 2040'을 도입해 명확한 목표와 4대 전략, 세부 과제를 유기적으로 엮은 점도 주요했으며, 무엇보다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및 바이오경제 2.0 등 국가 주요 정책들과 방향성을 일치시킨 것이 호평을 받았으며, 성과평가위원회는 국가 정책방향에 전략에 체계적으로 반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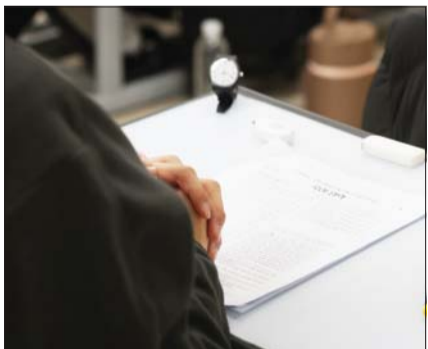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성과도 됐다.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송도·영종·청라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성 극대화 및 생활권 통합을 실현하고 미단시티 개발 정상화와 국제학교 유치 추진을 통해 장기 표준 사업들의 활성화를 이끌어냈다. /인천=이승영 기자 sy1321@

2027학년도 수능 11월 19일 시행

교육과정평가원, 시행세부계획 공고 전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한국사 미응시 땀 성적표 미제공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9일 시행된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고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 영역과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평가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6월과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변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구분된다. 한

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며,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국어와 수학은 기존과 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국어는 공통과목과 함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수학은 수학 I·수학 II를 공통으로 응시하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로 나뉜다. 사회·과학탐구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물리학 I, 생명과학 I 등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1일 (수) 음력 : 5월 17일

수도권 날씨 22~3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4 | 해질 / 19:57

연천 20/33, 동두천 20/32, 가평 20/33, 파주 20/33, 서울 22/33, 양평 21/33, 수원 22/31, 용인 22/31, 평택 21/31, 백령도 18/2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영국 수십 년 만 최대 軍개편, '우크라 모델' 본 받는다
▲“美가 막은 미토스급 AI 만들었다”... 中 업체들 “비용은 6분의 1” /사진 뉴스시스

▲레바논 대통령 “이스라엘 국경까지 군 배치”... 헤즈볼라 무장해제 변수
▲중국 군·해경, 스카버러 암초서 순찰 강화... “영유권 수호” 강조

▲中 공안부 “게임 ‘포켓몬 고’ 지도 정보, 국가 안보 위협될 수도”
▲中상무장관, 독일에 “중·EU 관계는 제로섬 아닌 윈윈”



중국 프랜차이즈
자본·콘텐츠 공세
국내기업 위기감
L1



Life

세포·유전자
치료제 규제 풍다
바이오 개발 탄력
L2



전기차 배터리 접수한 中... 물량 공세로 ESS 주도권 노린다

중국 첨단산업지도

③ 배터리 시장

내연기관차 시대에 엔진이 차량 성능을 좌우했다면 전기차 시대에는 배터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생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사실상 전기차의 심장이라 불린다.

세계 배터리 시장을 놓고 벌어진 한·중·일 3국 경쟁은 일단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는 뒤졌지만 국가 차원에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온 중국이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간 결과다. 세계 10대 배터리 기업에는 CATL, BYD, CALB, 귀쉬안하이테크(Gotion), EVE에너지, SVOLT 등 중국 기업 6곳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3곳, 일본은 파나소닉 1곳에 그쳤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후 배터리 업계의 다음 격전지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ESS가 배터리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에서 ESS 배터리 세계 1위로 사업을 넓히고 있는 CATL은 "2030년 ESS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전기차 시장을 중국 업체에 내준 국내 배터리 3사도 ESS 시장을 잡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시장마저 놓칠 경우 글로벌 배터리 경쟁에서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세계 1위가 또 세계 1위를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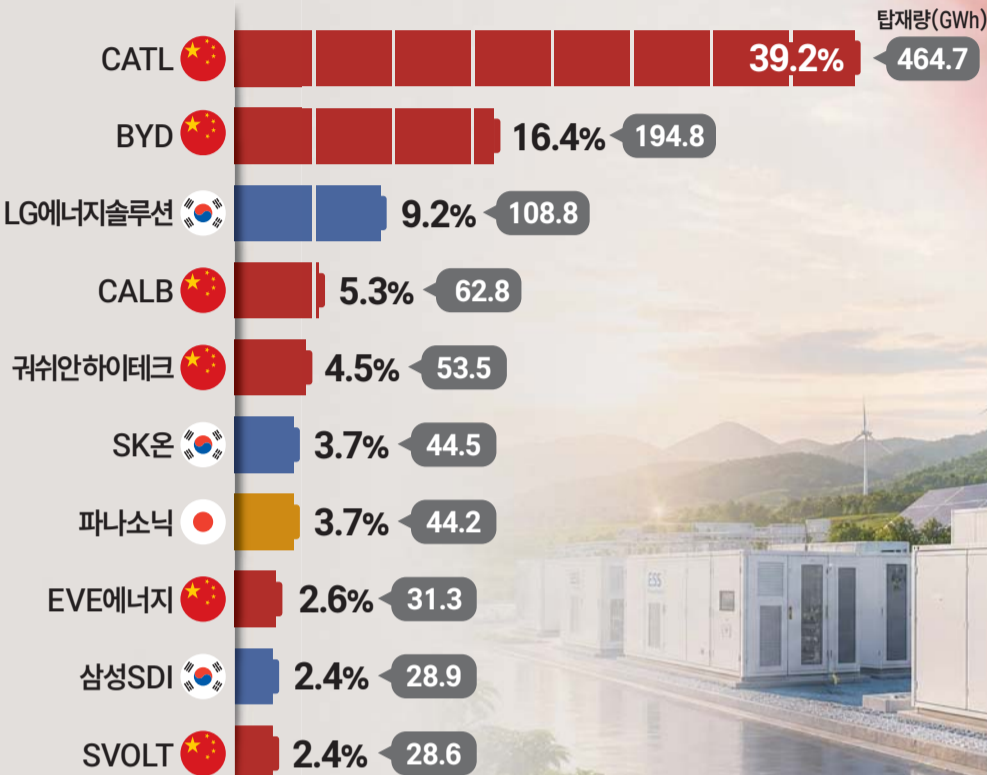
CATL은 현재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39.2%를 차지하고 있다. 2위 BYD(16.4%)와 합치면 중국 기업 두 곳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다.

CATL이 더 위협적인 것은 다음 시장인 ESS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 전 세계 신규 ESS 설치량은 35.89GWh로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가스발전소 건설 지연으로 태양광과 ESS를 결합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저장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동도 탈석유를 준비하며 ESS를 사들이고 있다.

CATL 유럽 ESS 담당 디렉터 케빈 탕은 2030년까지 ESS 사업 비중을 현재 25%에서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억위안(약 6805억원) 규모의 ESS 전용 테스트 센터를 설립했고 독일과 헝가리에 공장을 운영 중이다. 스페인에도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CATL이 ESS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기차 배터리에서 쌓은 규모의 경제가 있다. 셀 생산 원가를 낮추는 기술, 리튬·코발트 등 원자재 대량 구매력, 글로벌 고객 네트워크를 ESS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5년 세계 전기차배터리 점유율



자료/SNE리서치

/Chat GPT 이미지

전기차 시대... 배터리 핵심 부품으로 세계 10대 배터리 기업 중 6곳 '중국' 데이터센터 확산... ESS, 새 격전지로

CATL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39.2% 경쟁력 바탕으로 ESS 시장 장악 나서 지난해 中 ESS 배터리 출하량 79%↑ 단기 수익성보다 점유율 확보 전략

韓 배터리 3사, 미국 에너지시장 공략 중국 견제 정책서 반전의 기회 모색 시장 장악 위한 원가 경쟁력 확보 '과제'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이 ESS 배터리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장악한 구조다.

◆ ESS 시장, 중국이 판을 짜는 방식

ESS 시장의 급성장은 단순한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중국 기업들은 공급을 빠르게 늘려 가격을 낮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수요를 키우는 방식으로 시장의 판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ESS 설치 시장이다. 2025년 중국 내 ESS 배터리 출하량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글로벌 ESS 시장에서도 중국 상위 7개사가 83.3%를 점유했다. 현재 50개 이상의 중국 배터리 기업이 ESS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급 확대는 시장 성장을 촉진하지만 수익성 부담도 키우고 있다. EVE에너지는 2025년 ESS 출하량이 늘었음에도 순이익 증가율이 1.44%에 그쳤다. 출하는 증가했지만 가격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익은 크게 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ESS 산업이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지금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시장 재진입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가격 경쟁은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 시장 지배력을 우선하는 전략에 가깝다.

차세대 기술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차세대 리튬인산철(LFP) 2.0 등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파일론테크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분야 출하량 1위(200MWh)를 기록하며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 다시 뛰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저가 LFP 배터리를 앞세워 시장을 넓히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집중했다. 가격 경쟁에서 밀린 국내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 업체들에 내줘야 했다.

생산기동률은 이 격차를 보여준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기동률은 46.9%, SK온은 36.5% 수준인 반면 CATL은 96.9%를 기록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서 반전의 기회를 찾고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도 전년 대비 1.8배 확대됐다.

2026년 현재,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에너지 시장을 잡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2026년 북미 전체 생산능력을 2025년 대비 2배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SK온은 올해 20GWh 이상의 ESS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성SDI는 ESS와 로봇용 고성능 배터리를 EV 부진을 보완할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 방어선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GM과 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 정세에 대응해 한국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 구조를 재조정하고 중국 배터리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우회적인 방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노리고 있다.

2030년 ESS가 전체 배터리 시장에서 전기차를 넘어서는 시장으로 커진다면 한국 배터리의 입지는 ESS 경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프리미엄 전기차용 NCM 배터리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일정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ESS 시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핵심이다. LFP 기술 투자와 원자재 확보에서 중국이 앞서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추격은 쉽지 않다.

전고체 배터리는 한국 기업들이 기대하는 차세대 승부수다. 삼성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 토요타도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배터리 경쟁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CATL도 전고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국가 전략으로 지원하고 있다.

배터리 전쟁의 1라운드는 중국이 가져갔다. AI와 에너지 전환이 이끄는 ESS 시장이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면서 2라운드의 승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올 여름 한국 찾는 맨시티, 펍 후임으로 마레스카 감독 선임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화장실 외부 증축 가능 해진다 /사진 뉴시스

▲프로농구 '레전드' 함지훈, 18년 몸 담은 현대모비스서 지도자로 새 출발
▲"책임통감"...교원노조, 조롱받은 광주일고 선수 위로

▲올스타 홀런더비 팬투표 시작...김도영·강백호·김주원 등 12명 후보
▲'홍명보호에 역전패'한 체코 코우베크 감독, 사퇴